

숨죽여 우는 섬,
제주4·3을 마주하다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과장 김은주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관 이경아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 남경화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 손보경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과장 김은주	인천초은고등학교 교사 박대훈
인천대건고등학교 교사 강목형	인천초은고등학교 학생 김채령
인천대건고등학교 학생 박성재	인천초은고등학교 학생 서다빈
인천대건고등학교 학생 박민준	인천초은고등학교 학생 김은솔
인천대건고등학교 학생 장연우	인천초은고등학교 학생 조수진
인천대건고등학교 학생 이도현	작전고등학교 교사 이고운
인천신현고등학교 교사 이은영	작전고등학교 학생 구자건
인천신현고등학교 학생 조서영	작전고등학교 학생 김남준
인천신현고등학교 학생 조소은	작전고등학교 학생 김형민
인천신현고등학교 학생 이예스터	작전고등학교 학생 정연우
인천신현고등학교 학생 임해인	
인천영흥고등학교 교사 전지영	
인천영흥고등학교 학생 김은하	
인천영흥고등학교 학생 박범석	
인천영흥고등학교 학생 이다에	
인천영흥고등학교 학생 박지후	

발행일 | 2024년 10월 14일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주소 | (우)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삽화 | 김지현
편집 | 정혜교
펴낸곳 | 담쟁이 문화사 | Gpry1129@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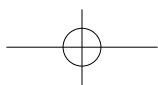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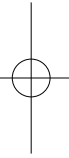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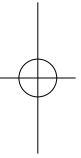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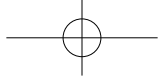
ISBN 979-11-988130-1-5 43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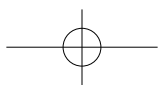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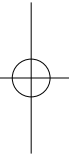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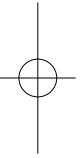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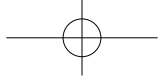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담쟁이 문화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5·3민주항쟁 제주4·3
역사·평화교육 1차 학생교류 포토에세이

숨죽여 우는 섬, 제주4·3을 마주하다







차례

서문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김은주 과장

인천 제주 역사교류 프로그램 일정표

포토에세이	대건고	박민준	_18
	대건고	장연우	_22
	대건고	이도현	_24
	대건고	박성재	_28
	대건고 지도교사	강복형	_32
포토에세이	영흥고	김은하	_36
	영흥고	박범석	_40
	영흥고	이다애	_44
	영흥고	박지후	_48
	영흥고 지도교사	전지영	_52
포토에세이	인천신현고	임해인	_54
	인천신현고	이에스더	_57
	인천신현고	조서영	_62
	인천신현고	조소은	_65
	인천신현고 지도교사	이은영	_66
포토에세이	작전고	구자건	_68
	작전고	김남준	_72
	작전고	김형민	_74
	작전고	정연우	_78
	작전고 지도교사	이고운	_82
포토에세이	초은고	김은솔	_84
	초은고	서다빈	_88
	초은고	조수진	_92
	초은고	김채령	_94
	초은고 지도교사	박대훈	_98

인터뷰 시민들이 생각하는 제주4·3사건
- 대건고등학교 1학년 이도현 장연우
- 104

 시민들분이 알고 계시는 제주4·3사건
-대건고등학교 2학년 박성재 박민준
- 106

인터뷰 인천신현고등학교
- 109

인터뷰 제주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제주4·3’에
 대해 묻다
- 작전고등학교 구자건 김형민
-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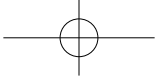
인터뷰 권윤덕 작가님의 인터뷰
-작전고등학교 김형민
- 127

인터뷰 희생의 노래, 평화의 울림: 제주4·3 합창단의 소망
-초은고등학교 조수진
-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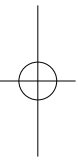
 잊히지 않는 아픔, 제주4·3 그날을 다시 묻다
-초은고등학교 서다빈
- 1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백미경 장학사님 인터뷰
4·3의 아픔을 넘어서, 기억과 공감을 잇는 여정
-초은고등학교 김채령 김은솔
-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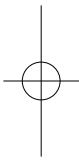




누군가에게는 아름답고 고즈넉했을 북촌리 작은 포구.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토벌대의 총탄에 동백꽃 잎처럼 맥없이 스러져 간
피맺힌 한과 슬픔이 가득한 곳.



거친 돌틈 사이로,
평화와 화해의 꽃이 슬며시 고개를 내밀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인천5·3민주항쟁 제주4·3 역사·평화교육 학생교류 참가 활동

5.23.(목) 1일차



우리의 출발지 김포공항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사전교육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던 우리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
한 번 더 안전교육을 통해 우리의
활동을 점검해요

우리의 도착지 제주공항

금방 도착한 제주!
이곳 제주에서 펼쳐질 제주4·3
사건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두근두근



첫째 날 점심식사

첫날 점심부터 고기로 든든하게
배를 채운 우리들. 맛집 인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이번 우리의 활동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당연히 이곳에서 첫 출발을 해야겠지요?



제주4·3 평화합창단

제주4·3 사건 유가족으로 구성된 '제주4·3 평화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는 우리들 노래라는 것을 매개로 마음을 나눕니다

제주4·3 평화공원 참배 및 헌화

도성훈 교육감님과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에 도착한 우리 친구들은 제일 먼저 참배 및 헌화 시간을 가졌어요. 위령제단에서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위령제단과
위패봉안실



우리가 추모 시간을 가진 위령제단 뒤에 있는 위패봉안실은 희생자 14,768명 중 14,654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공간이에요. 친구들이 방명록에도 글을 남겨보았답니다.

제주4·3평화공원-행방불명인 표석

위패봉안실 오른편에는 시신을 찾을 수 없는 희생자 표석 4,03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끝없이 열 지어 있는 표석을 조용히 바라보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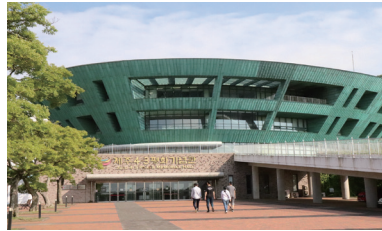
제주4·3평화공원- 봉안관

이곳은 ‘4·3유해발굴사업’에 의해 발굴된 413기의 유해 중 374개의 제주4·3 희생자의 유해가 봉안된 곳이에요. 실제로 발굴현장을 재현해 놓은 곳도 있었답니다.



제주4·3평화공원-평화기념관, 위령탑, 귀천 그리고 모녀상 비설

평화기념관은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기록한 전시실과 영상관 등이 있어요.
 야외에는 다양한 조형물이 제주 4·3을 각자의 목소리로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둘러본 공간. 어떤 장소와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마음에 남았나요?



너븐숭이 4·3 기념관



북촌 주민들이 쉬어가던 넓은 땅을 이르는 말 ‘너븐숭이’
 1949년 북촌리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북촌리- 너븐송이 애기무덤



“아직 눈도 떠보지 못한 아기들
일까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한
어머니의 한도 함께 묻힌 애기
돌무덤. 사람이 죽으면 흙 속에
묻히는 줄로만 알았던 우리 눈
이 너무 낮선 돌무덤 앞에 목이
메인다. 목이 메인다” -양영길
의 시 <애기 돌무덤 앞에서>-

북촌리-순이삼촌 문학기념비

북촌리의 학살을 소재로 제주
4·3을 본격적으로 다룬 현기
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촌』.
소설의 글귀가 새겨진 빗돌들
그리고 중간중간 글자가 없는
백비.

그걸 바라보고 있던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북촌리-위령비

너븐송이 기념관 옆에는 ‘제주
4·3 희생자 북촌리 원혼 위령비’
가 세워져 있어요.

비에 있는 태극기를 보며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답니다





북촌리-북촌초등학교

1949년 1월 17일. 제주4·3사건 당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인명 희생을 가져온 북촌리 학살 사건이 북촌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동쪽의 '당팻'과 서쪽의 '너븐숭이'로 나뉘어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첫째 날 저녁식사

제주! 하면 돼지고기를 빼놓을 수 없지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5.24.(금) 2일차



알뜨르 비행장

‘알뜨르’는 ‘마을 아래 너른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일제강점기 일본은 제주도민 등을 동원하여 군용비행장을 건설하였고, 중일전쟁기에는 이곳을 전초기지로 삼아 후에는 가미카제를 위한 조종 훈련도 했어요. 20여기가 넘는 격납고가 과거를 얘기해주고 있었답니다.



섯알오름 예비검속 희생자 추모비



섯알오름 예비검속 당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입니다. 묵념을 하며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진 우리 친구들. 강한 햇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섯알오름 학살터

일제의 폭탄창고를 미군이 폭파하며 생겨난 구덩이. 6·25 전쟁이 일어나자 그저 구덩이였던 이곳에서 예비검속으로 검속된 사람들이 집단 총살을 당했어요. 학살을 당하던 사람, 총을 겨누고 있던 군인 그리고 그들이 바라봤을 풍경을 바라보았답니다.



백조일손묘와 위령비

섯알오름에서 학살이 일어난 후 6년이 지나서야 발굴이 이뤄졌기에 모든 뼈는 뒤엉켜 있었어요. ‘백조일손’이란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날한시에 죽어 누구의 시신인지도 모르는 채 같이 묻혀 무덤도 같고, 제사도 같이 치르니 그 자손은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송악산 일제 해안 동굴진지

일제강점기 패전에 직면한 일본이 연합군 함대를 향해 소형 선박을 이용한 자살 폭파 공격을 하기 위해 구축한 군사 시설이에요. 형태는 ‘—’자형, ‘H’자형, ‘ㄷ’자형 등으로 송악산 해안 절벽을 따라 17개가 만들어졌어요.

둘째 날 점심식사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점심을 먹었어요!
학생들을 배려해 준비해 주신 반찬 그리고 인기 만점이었던 즉석 라면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지

제주! 하면 한국사 고려시대 때 배운 대몽항쟁 장소가 있지요!!
‘삼별초’의 마지막 보루였던 향몽 유적지를 우리 친구들이 둘러 보았답니다





영모원

영모원은 하귀리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화해와 상생의 표본이 되는 장소예요.

이곳은 일제시기 항일운동가와 제주4·3 희생자 그리고 제주4·3 및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희생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있어요. 이 공간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제주를 느껴봅니다



둘째 날 저녁식사

맛있어서 한번, 양에 또 한번 놀랐어요. 이어질 활동을 위해 배를 빵빵하게 채웠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이틀 동안의 활동을 함께 나눠본 시간. 학교가 겹치지 않게 편성된 모둠에서 열띤 토의·토론 시간을 갖고, 갤러리워크 활동을 통해 생각을 나누는 우리 친구들! 정말 멋있었어요



5.25.(토) 3일차

북초등학교



제주4·3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한 장소예요. 1947년 이곳에서 ‘3·1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렸고, 제주 각지에서 학생과 시민 3만여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념식을 마친 사람들은 3·1운동 계승과 자주독립을 외치며 길거리 행진(시위)을 이곳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관덕정

북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길거리 시위 중 응원경찰이 탄 말에 어린이가 채이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경찰의 태도에 분노한 군중이 몰렸고, 경찰이 군중에게 무차별 발포를 하여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던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장소를 직접 걸어보았답니다.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제주4·3시기 한라산 자락으로 도피했던 제주 사람들은 ‘자주 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돌아왔지만, 이들은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주정공장은 최대의 집단 수용소였어요. 불법적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육지에 있는 형무소로 강제 이송되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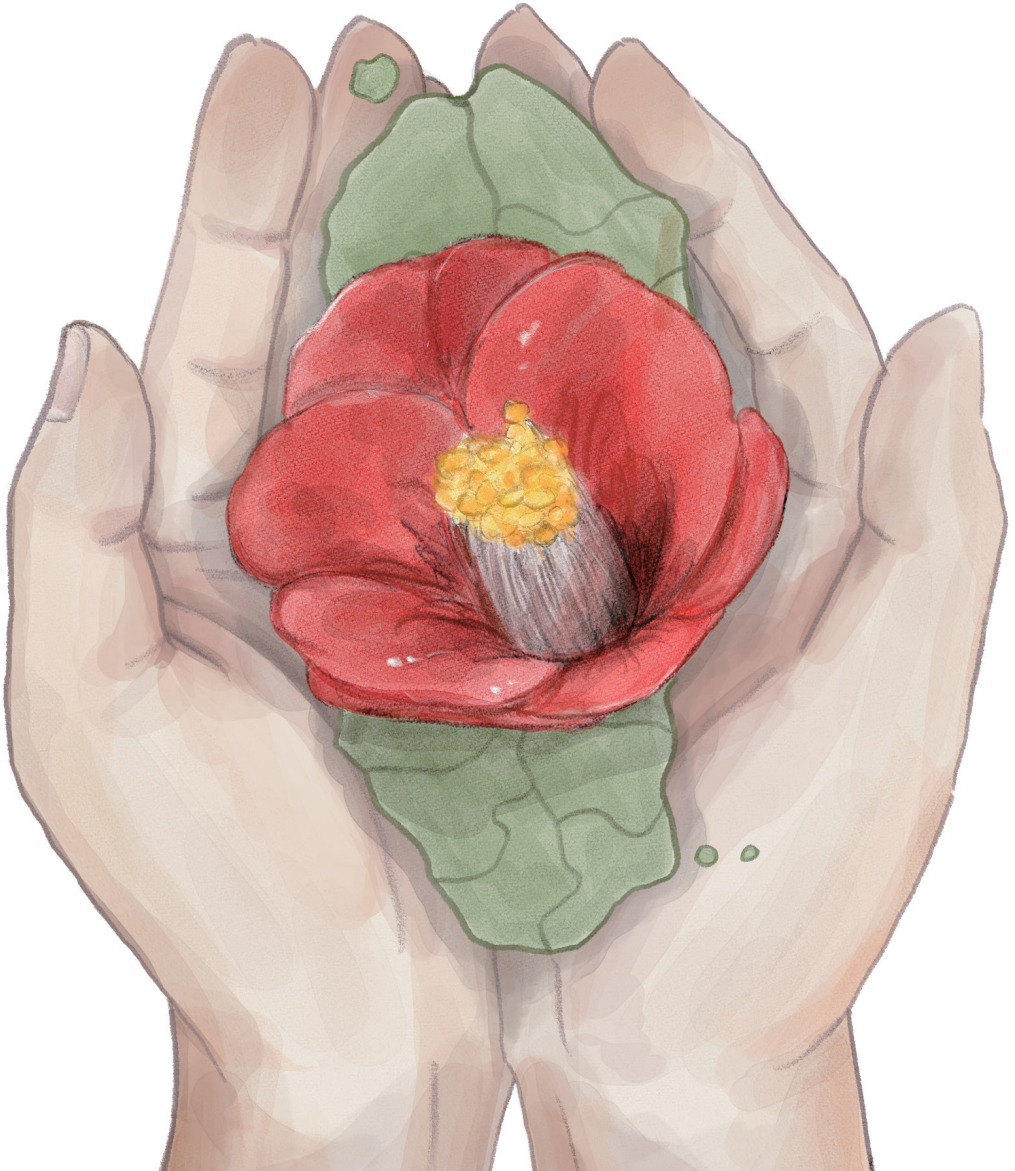
친구들과 함께한 멋진 선생님

묵묵히 우리 친구들의 앞, 뒤, 양 옆에서 함께하며 친구들의 필요와 성장을 위해 마음을 다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인천대건고등학교





기억해야 할 문학을 새기다...





보십시오... 단편적인 글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짧은 글들이 흐트러져 있을 땐
퍽이나 하나의 문학이 될까 의심하였습니다만,
흐트러진 제주 민중들이 힘을 합하여 극복한 길을 따르듯
이 문학비들도 언젠가는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북촌리 4·3사건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앓길...

인천대건고등학교 2학년 박민준





모든 비극을 알고 있는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삼방산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때의 피비린내와 죽음의 비명을 삼방산은 알고 있다

인천대건고등학교 2학년 박민준

알뜨르 비행장

무고한 희생이 담긴 비행장



알뜨르 비행장은 비행기 구조물과
풀들로 이루어진 활주로가 있으며,
제주4·3사건 당시 많은 무고한 희생과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

인천대건고등학교 1학년 장연우



섯알오름 학살터

가슴 아픈 역사와 인간의 잔혹함이 함축된 비극의 현장



이곳에서 계엄당국에 의해 집단총살을 당해
212명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인천대건고등학교 1학년 장연우

가족을 기다리는
셋알오름 고무신

제주4·3사건 당시에 학살터로 끌려가던 희생자들은
고무신을 바닥에 던져서 자신이 죽었음을 가족에게 알렸다고 한다.
여기 셋알오름에는 가족 잃은 고무신들이 남겨져있다.





인천대건고등학교 1학년 이도헌

집 잃은 영혼들을 위한 곳

제주4·3 평화공원

제주4·3 평화공원은 제주도 민간인 학살과
제주도민의 처절한 삶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원 안에는 위령탑을 중심으로 여러 각명비가 들어서 있다.
잊혀졌을지도 모를 이름들이 위령탑 주위를 둘러싸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인천대건고등학교 1학년 이도현



6.25 전쟁 때 감추어진 우리나라의 잔혹한 과거

백조일손

예비 검속으로 7월 초부터 붙잡혀온 347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1950년 8월 20일 밤중에 이들 중 250명 가량을 창고에서 끌어내어 해병대와 경찰들이 합동으로 첫알오름 기슭에서 새벽 2시와 5시 경에 61명, 149명으로 나누어 총살을 하였다. 백조일손 희생자란 이 때 희생된 210명~250명 중 1957년에 발굴되어 현 묘역에 안장된 132명을 말한다. 아직도 당시 피해자분들의 약 40명의 명단과 시신은 아직도 그 행방을 알지 못한다.

부디 고통과 절망없는 곳에서 영원히 지내시길...

인천대건고등학교 2학년 박성재



제주4·3사건을 바라볼 때 필요한

마음가짐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영모원은 군·경 희생자와 4·3 희생자를 한 곳에 모셔 같이 위령제를 지내는 곳이다. 애조로 바로 옆에 있는 영모원에는 위령단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위국절사 명현비’와 ‘호국열사 충의비’가 있고, 오른쪽에는 ‘4·3 희생자 위령비’가 있다. 또한 영모원의 ‘4·3 희생자 위령비’의 뒷면에는 ‘여기 와 고개 속이라’ 는 글이 있다. 이 글은 세월을 지나고 보니 모두 같이 희생자이기에 모두를 용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글처럼 제주4·3사건을 바라보며 기르고 생각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다.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인천대건고등학교 2학년 박성재



32



무심한
북촌리 바위

제주도가 형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북촌리 바위는 담담하게 우리를 맞이한다.
인간의 기쁨, 슬픔, 절망, 욕망을 모두 알고 있는
절대자처럼 언제나 저 자리에서 무심한 듯 우리를
바라보겠지.

인천대건고등학교 지도교사 강목형



모두가 한 뜻

무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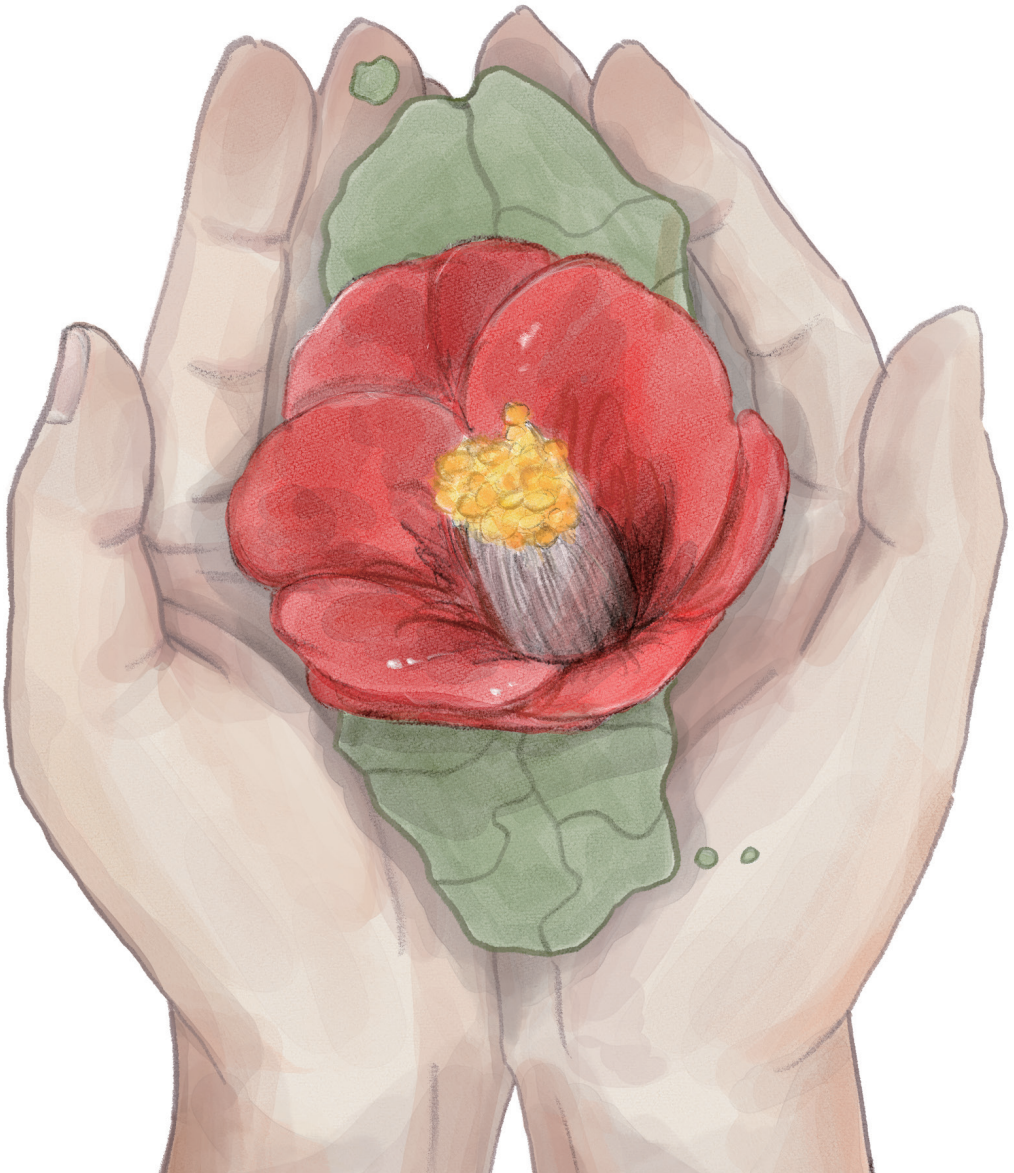
제주4·3사건을 기억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작품을 만들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든다. 모두 다른 색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주4·3의 아픔도
이렇게 치유되기를 바라본다.

인천대건고등학교 교사 강목형



2

인천영흥고등학교





36



제주의 영혼들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노잣옷

돌아가신 고인이 저승길을 떠날 때 여비를 하시라고 관에 지참금을 넣어드리는 것을 흔히 ‘노잣돈’이라 한다.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공식적 민간인 피해자 수는 14,028명이다. 사건 당시 몇몇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희생자들께서 장래도 치르지 못하고 생을 마감 하셨다. 그래서 고인에게 입혀드리는 삼베옷 또한 해드리지 못하였다. 2024년 봄, 우리가 찾아간 제주4·3 평화공원에는 이렇게 장래를 치르지 못한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삼베옷의 비석이 있다. 이것이 그들이 가시는 길에서, 평안으로 인도하는 ‘노잣옷’이 될 수 있길, 마지막 넋을 위로 할 수 있길 빌어본다.

인천영흥고등학교 3학년 김은하

아무 죄 없이 아무 데나 만들어진

돌 요람

해당 사진은 제주4·3사건 당시, 오늘날 제주시 조천읍의 동쪽 끝에 자리 잡은 해변마을인 북촌에서 일어난 ‘북촌 학살’에서 희생 당한 미성숙아가 묻힌 돌로 만든 ‘애기 무덤’이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시신을 간소하게 매장한 것이다. 학살 당시 가족과 생이별을 하며 헤어진, 눈물을 흘리던 아기들이 마치 요람의 형태를 한 애기 무덤에서 편안히 잠들기 바라며 ‘돌 요람’이라는 이름을 붙여본다.

인천영흥고등학교 3학년 김은하







눈물의

검정고무신

이 장소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가 학살한 예비검속자이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추모비다. 당시 희생자 분들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검정고무신을 벗어 던지며 자신들의 죽음을 가족에게 알렸다. 그리고 2007년 추모비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눈물의 검정고무신이 모셔져 있다.

인천영흥고등학교 3학년 박범석



이름마저 잊혀진

그들

제주4·3 당시 시신을 찾지 못하고 기록도 없어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있는 무명신위
위패조형물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희생자
의 후손들은 진상 규명과 올바른 이름을 찾고자 노력하
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날의 비극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천영흥고등학교 3학년 박범석



시간이 멈춰져 있는 제주의
동백꽃 집합지

44



이곳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분들을 모셔놓은 곳이다. 위에 문장을 쓰게 된 이유는 이곳에 대한 얘기를 듣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곳은 제주4·3사건의 피해자들의 시신을 모셔 놓은 곳이다. 매년 새로운 희생자가 발견될 시, 그분들을 이곳으로 모셔온다고 한다. 시간이 멈춰져 있다는 것은 제주4·3사건이 현재에도 유가족이라는 형태로 계속하여 이어지지만, 그때 희생된 분들의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4·3 평화공원에는 이곳 말고도 의미 있고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다.

인천영흥고등학교 3학년 이다애



46



아름답게 지고 있는 노을과 함께하는 초등학교의 암울한 과거

이곳은 제주 북국민학교로 아름다운 외관과는 다르게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총살을 당했다’라는 어두운 과거가 있다. 1949년 1월 17일, 제주4·3 당시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죽었다. 이는 북촌리 학살사건이라 불리게 되었고 주민 500여명이 한 날 한 시에 사망했다. 이곳에서 일어난 비극 중 한 가지 일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가 강요배는 ‘젓먹이’라는 작품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그 그림은 총에 맞아 이미 죽은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였다. 그림에서 나오듯 그 당시 시민들은 이곳에서 무자비한 총살을 당하였고 살아남은 이는 없다고 할 정도로 무자비 했다. 살아남은 이들은 모두 경찰 혹은 군인의 가족이었다. 이 그림은 현재 제주 너븐성이 4.3 기념관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북국민학교는 북초등학교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인천영흥고등학교 3학년 이다애

절규가, 정적이 흐르는 장소이자
당신의 마지막을 장식할

비석들

여기 위령비들은 억울하게 군사 재판을 당하고
전국 각지 수용소에 끌려가신 희생자분들을 모신 장소이다.

총 4028분의 표석이 계시고 있고
매년 늘어나는 등 고요하지만 그들의 억울한 한과 절규가
바람소리에 감겨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나하나 전부 알 수 없는 비석들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장소이다 그들의 삶에 억울함을 기억하고,
이들의 인생에 후회를 갖지 않기를...

영흥고등학교 학생 박지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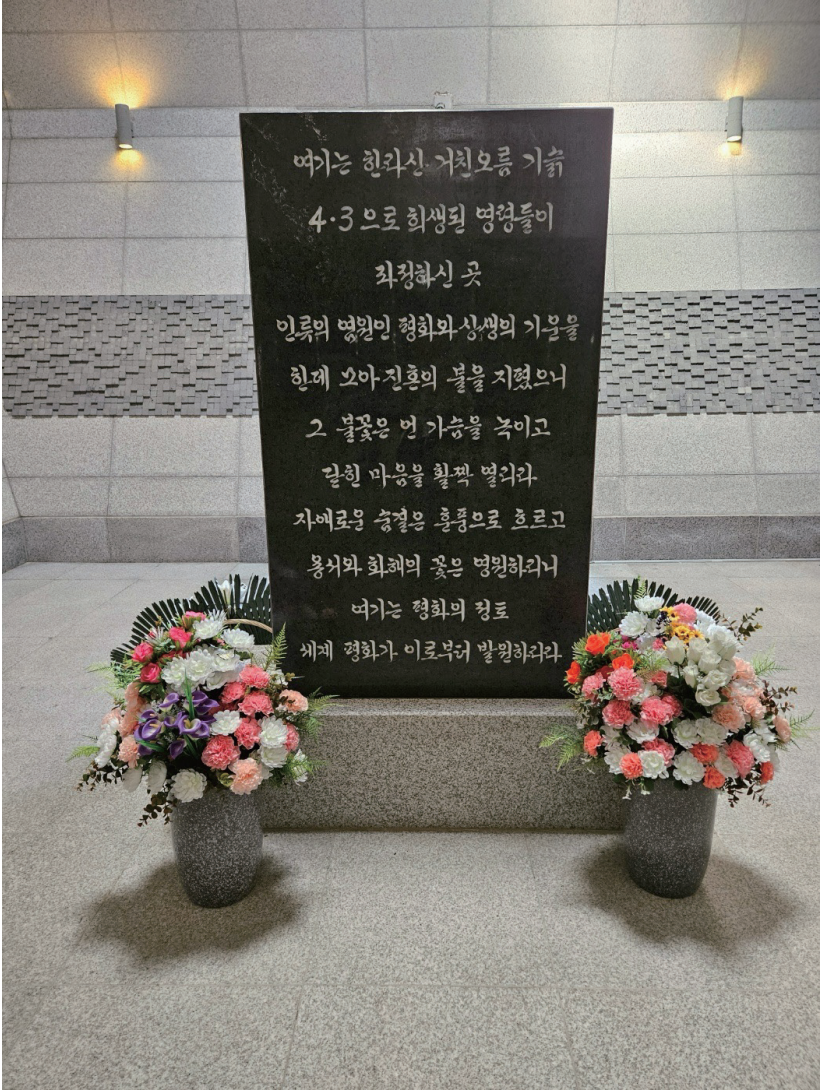
차디찬 슬픔, 온 마을의 파도를 잠재울

진혼의 불꽃

여기 위패 봉안실에는 제주4·3당시
14,719명의 위패를 봉안한 장소이다.
제주4·3 희생자로 결정 되지 못한 모든 희생자를
위무하는 무명신위 위패도 봉안되어 있는 장소이다.
당신의 죽음에 의미가 있기를,
오지 못한 이들을 추모하고 당신의 마지막을 기리며….

영흥고등학교 학생 박지후







무지의 고통

무명(無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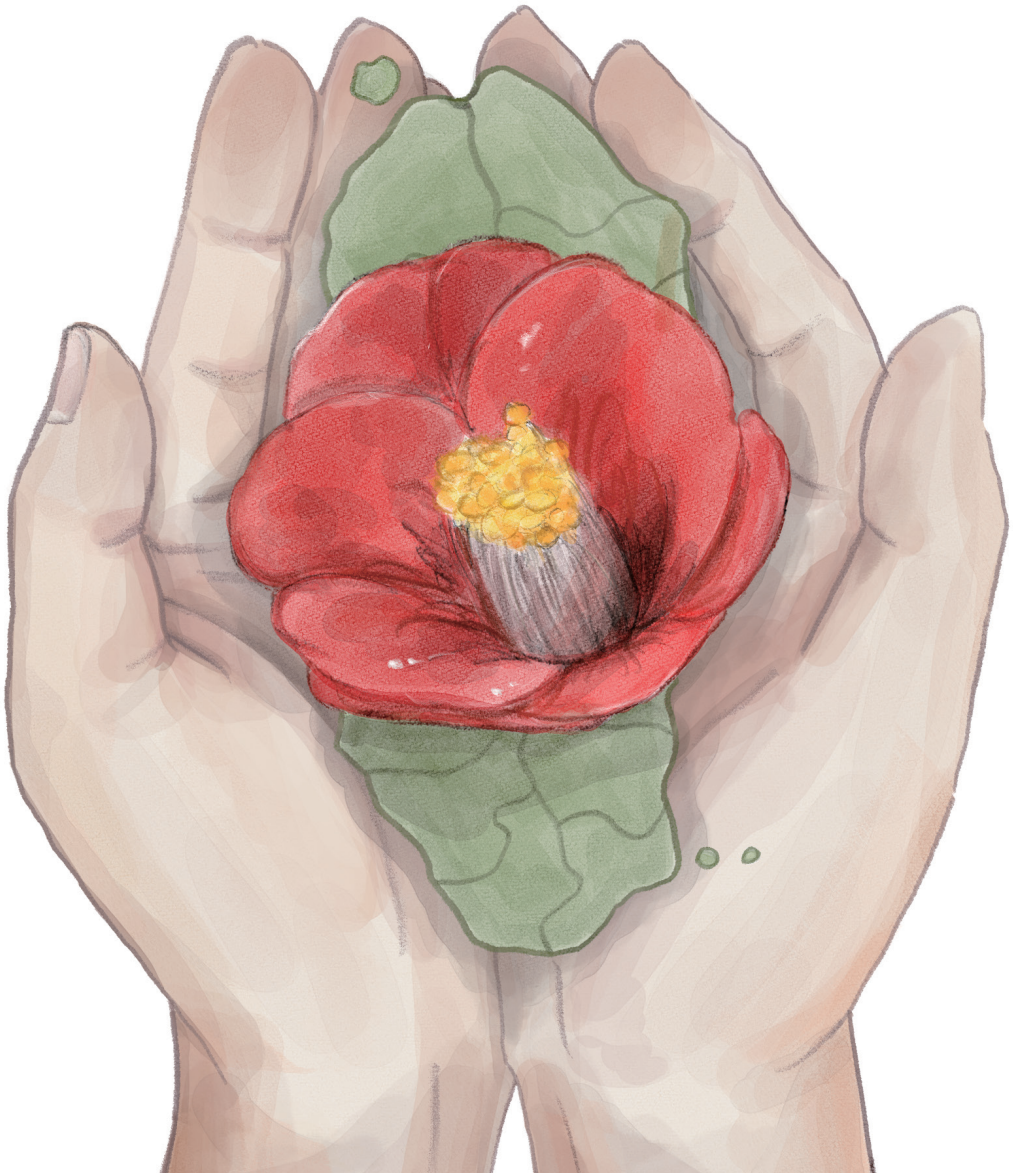
불교에서 인간 생사의 근원을 밝히는 12연기의 첫머리에 나오는 무명은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고통이 생긴다는 것으로 모든 고(苦)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 4·3평화공원 내에 위치한 위패 봉안실을 살펴다 보면 수 많은 무명(無名) 신위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1948년 4월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수 많은 사건들과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우리의 무명의 고통을 느낀다.

인천영흥고등학교 지도교사 전지영



3

인천신현고등학교





북촌초등학교

이 학교를 보고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났다. ‘이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살았을까, 나는 정말 평화롭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은 몽클한 마음이 들었다. 그 시대를 살아보아야지 느낄수 있는 감정을 한번쯤이라도 느껴본다면 어떤 것이 달라질지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인천신현고등학교 학생 임해인



울퉁불퉁하며 넘어졌다간 상처가 생길 것 같은 땅!
그때 사람들에게 생긴 상처들은 차마 내가 공감할
수없이 크겠지만, 나의 공감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천신현고등학교 학생 임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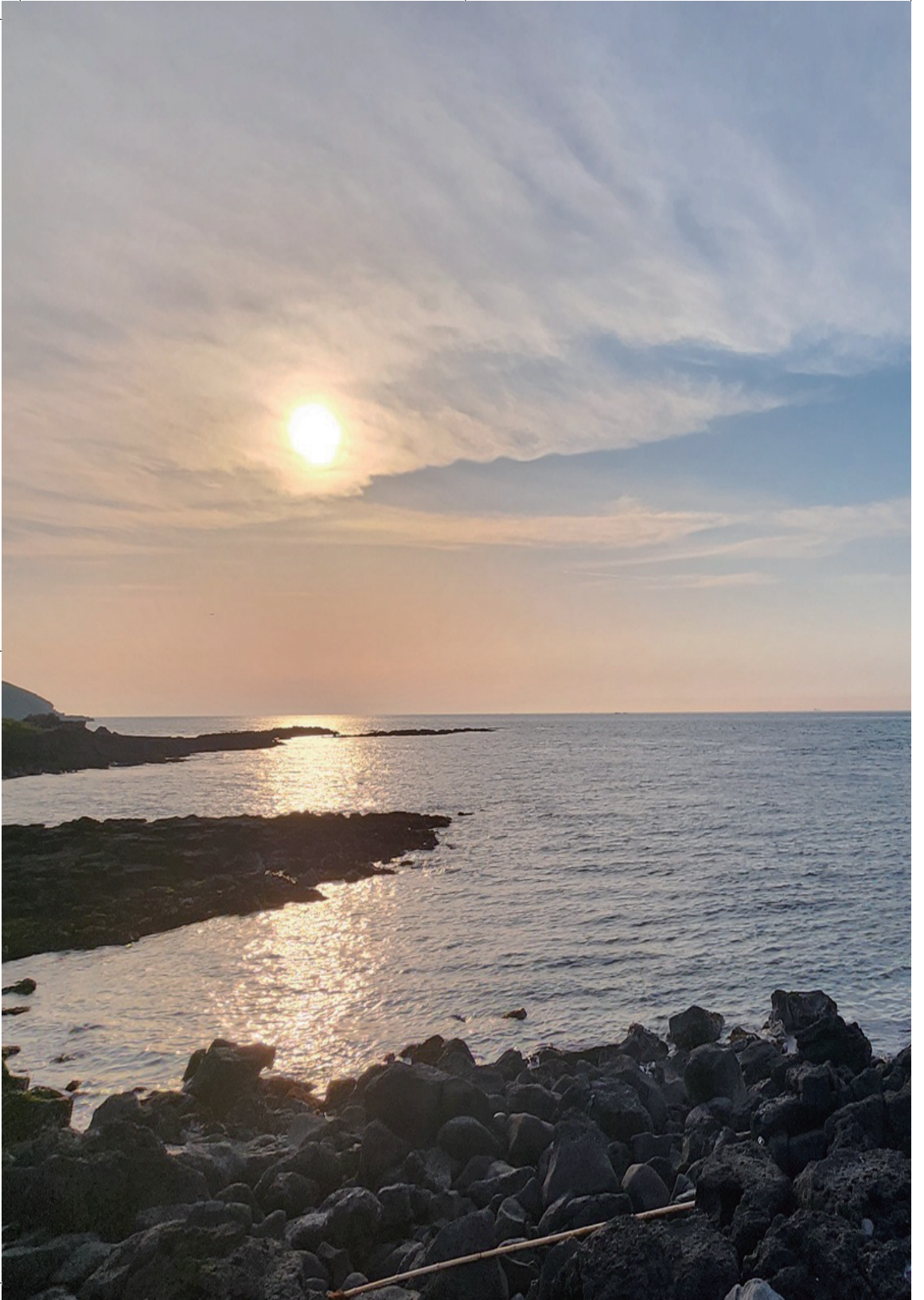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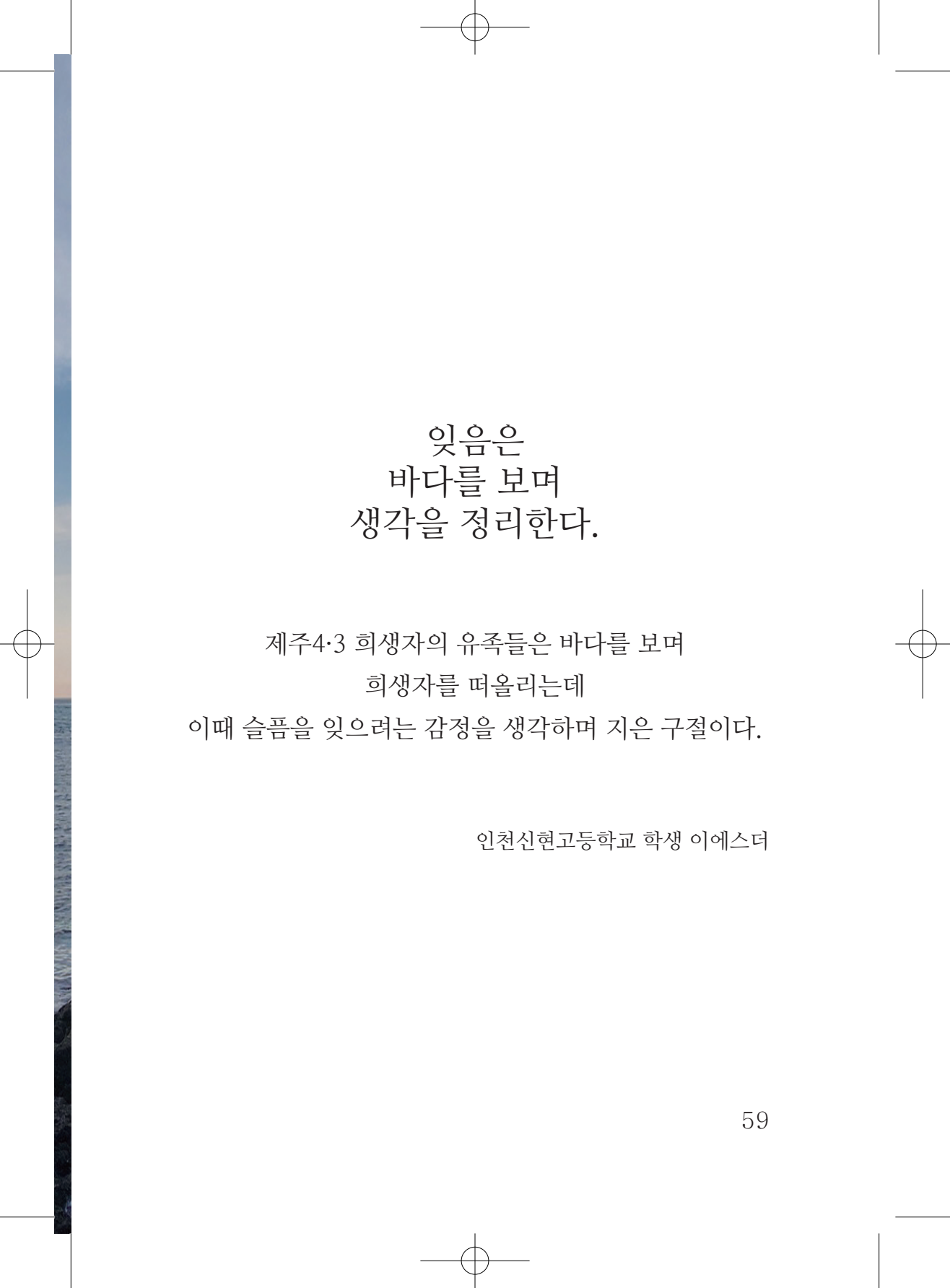
깊은 곶은 슬픔의 울림이다.

제주4·3 때 희생자들이 숨어있었던 동굴과
숨어있다 희생 당하신 분들이 많았기에
슬픔의 울림으로 표현했다.



인천신현고등학교 학생 이에스더





잊음은
바다를 보며
생각을 정리한다.

제주4·3 희생자의 유족들은 바다를 보며
희생자를 떠올리는데
이때 슬픔을 잊으려는 감정을 생각하며 지은 구절이다.

인천신현고등학교 학생 이에스터



60



화합은 화해를 만든다.

영모원을 방문하면서 제주4·3 희생자와 군·경 희생자가 화해를 하고 화합해 영모원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감명을 받았다.

인천신현고등학교 학생 이에스더



62



4·3백비, 이름짓지못한역사

4·3백비에는”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라는 문구가 있다. 이를 보며 제주4·3이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했다는점이 떠올라, 제주4·3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되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인천신현고등학교 학생 조서영



권리란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여 얻은 결과이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말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신현고등학교 학생 조서영



평화

평화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가치이자 절대적인 요소이며 인권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우리들은 평화와 인권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올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천신현고등학교 학생 조소은



북촌포구에서 만난

생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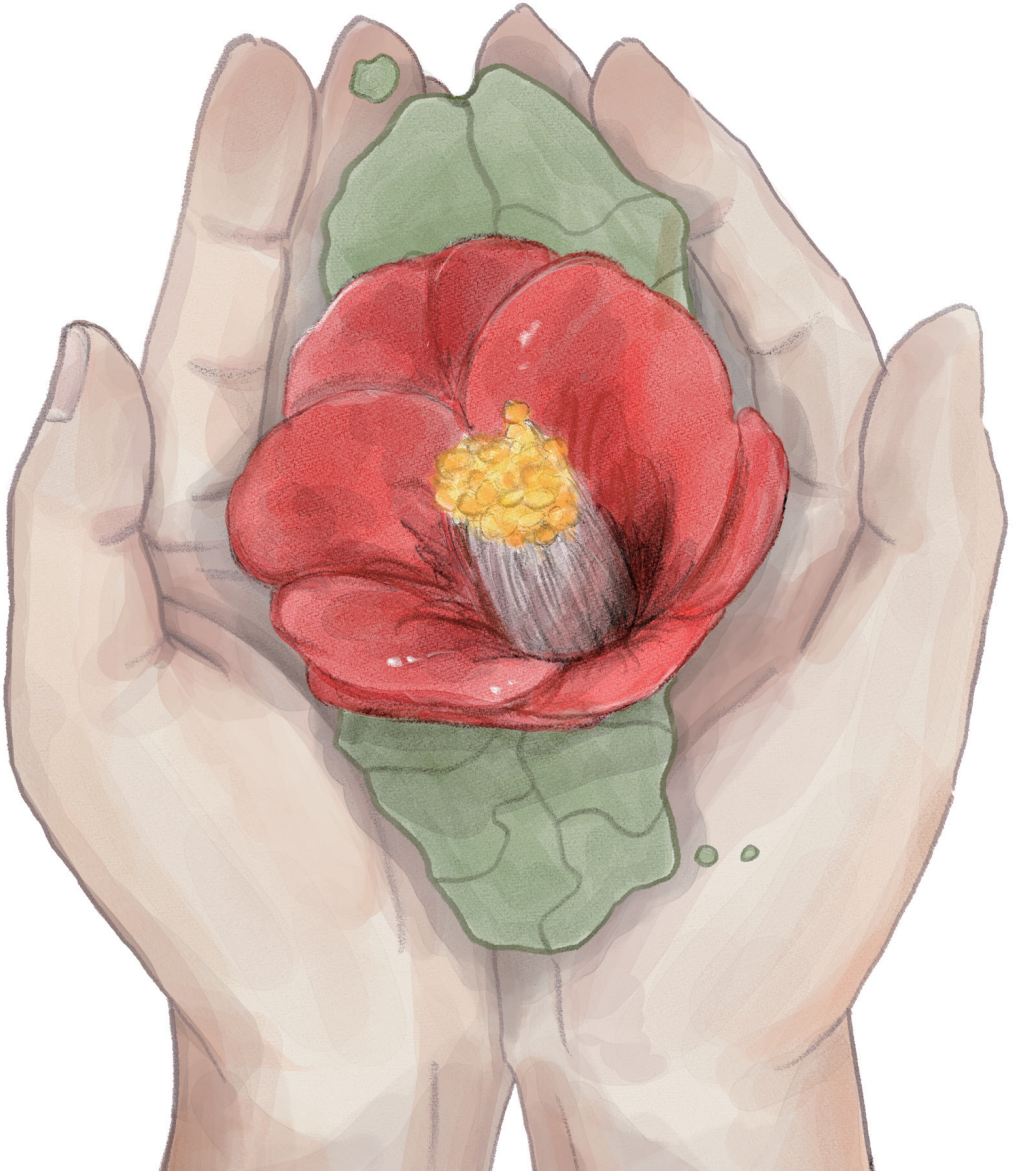
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이 된 밭에서 옴팡밭의 비극과 북촌 사람들의 아픔을 체험하고 멍멍해진 마음을 어찌할지 휘적거리다가 북촌포구에서 만난 풀이다. 바위를 뚫고 자라나 꽃망울을 터뜨린 생명력을 보면서 긴 세월 동안 아무말 못하고 멍든 가슴을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 고통을 극복하고 역사와 화해하려는 제주4·3의 강인한 의지를 읽었다.

인천신현고등학교 지도교사 이은영



4

작전고등학교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힘들었던

아픔

순이 삼촌은 제주4·3사건을 공론화시킨 문학으로 평가 받고 있는 소설이다. 소설가 현기영은 소설 순이 삼촌을 통해 4·3사건의 참혹상과 그 후유증을 고발함과 동시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사건의 진실을 문학을 통해 세상에 알렸다. 지난 2008년 정부에서 옴팡밭 부지를 매입해 순이 삼촌 문학비를 세웠다. 쓰러져 있는 비석들은 당시 쓰러져 간 희생자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널브러져 있는 비석들을 보면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아파했을 사람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 이 누워있는 비석들은 내 심장 어딘가를 쿡쿡 찌른다. 이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느꼈다.

작전고등학교 2학년 구자건

어딘가 씩씩한 여운을 남겨주는

사람들의 소리

제주도 4·3평화공원에는 독일의 동서 냉전의 상징물인 베를린 장벽 조각이 있다. 2007년 독일 베를린 시가 4·3 평화공원 조성을 기념하며 기증한 것이다.

분명 이 벽을 보고 감동받고, 이런 굵은 역사의 상징을 보고 놀라야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이 벽의 존재가 어딘가 씩씩한 여운을 남겨준다. 이 벽을 보면 그때 그 역사 속 사람들의 기쁜 환호성도 들리지만, 분단의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의 슬픈 노래가 들린다.





작전고등학교 2학년 구자건

애절한 비통함 속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함



이 동상은 제주4·3 평화공원에 있는 모녀상 “비설”이다. 1946년 1월 6일 봉개동 지역 2연대 토벌작전이 펼쳐지면서 군인에게 쫓겨 2살 난 젓먹이 딸을 등에 업은 채 피신 도중 총에 맞아 희생된 변병생 모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조각상이다. 아이를 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 안에서 아이가 차라리 잠에 들라고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이 부모의 간절함을 고요하게 담아낸 슬픈 상징이라 생각이 든다.

작전고등학교 2학년 김남준



비극을 희망의 선율로 노래하는

아름다움



제주4·3 유가족 합창단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4·3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담은 합창단이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제주 사회에 뿌리박힌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이다. 비극적인 역사를 음악으로 기억하고,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아름다운 노래로 전하는 합창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전고등학교 2학년 김남준

위로 올라오는 희생자들의

눈물

옆에 이 사진은 학살이 자행된 장소이다. 학살터에는 양쪽으로 구덩이가 두 곳 있는데, 본래 이곳은 일본군이 탄약고로 사용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미군이 폭파시켜 이렇게 구덩이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폭파 장소에서 무차별 학살이 자행되었다. 그 후, 우측 웅덩이에서 62구의 유해가, 좌측에선 149구의 유해가 발굴되었다. 이곳에선 비가 오고 나면 물이 고이기도 하는데, 내가 느끼기엔 이것은 마치 희생자들의 눈물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작전고등학교 2학년 김형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옆에 이 사진은 ‘행방불명인표석’이다.
‘행방불명인표석’은 시신을 찾을 수 없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표석이다. 현재, 국가기록원 ‘수형인명부’에 적혀있던 4·3 피해자 총 2530분 중 1570분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시신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희생자들이 전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자식으로서, 가족으로서 살아 있는 동안 가족을 찾아 올바른 곳에 묻혀드리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유가족들의 이러한 시신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꺾이지 않는 마음’에 리스펙트 하는 감정이 들었다.

작전고등학교 2학년 김형민

평화를 상징하는 과거와 현재의 연대
화해의 장소



영모원은 일제시기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항일운동가를 배출했고, 4·3 기간 많은 희생을 당했던 대표적인 두 마을(조천, 하귀) 중 한 마을인 하귀에서 주민들 스스로 논의하고, 준비하여 개원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간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려웠던 4·3 시기 군경 희생자와 4·3 희생자를 한 곳에 모심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표본이 되고 있어 향후 다른 마을에서 비슷한 묘역을 개설하는 데는 물론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내가 영모원을 화해의 장소라고 말한 이유는 당시 학살을 이행했던 군경 희생자도 4.3 희생자와 같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일종에 어떤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다.

작전고등학교 2학년 정연우

지옥 같았지만 그리운

기억의 그늘

주정공장은 4·3 시기 최대의 집단 수용소였다.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명도, 형량도 알지 못한 채 ‘육지’에 있는 형무소로 강제 이송됐다. 그들이 섬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수용됐던 곳이 바로 제주 주정공장이다. 내가 주정공장을 기억의 그늘이라고 한 이유는 빛이 있는 곳엔 늘 그늘같이 어두운 구석이 있는 것처럼 현재는 극복한 것처럼 밝아 보여도 자세히 보면 밝지 않은 과거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밝은 빛과 그늘로 대비되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옥 같았지만 그림다고 한 이유는 이곳이 수용되었다 육지로 호송되었던 분들이 마지막으로 본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작전고등학교 2학년 정연우

민들레 꽃으로 피어 전해진 132분의 마음

고마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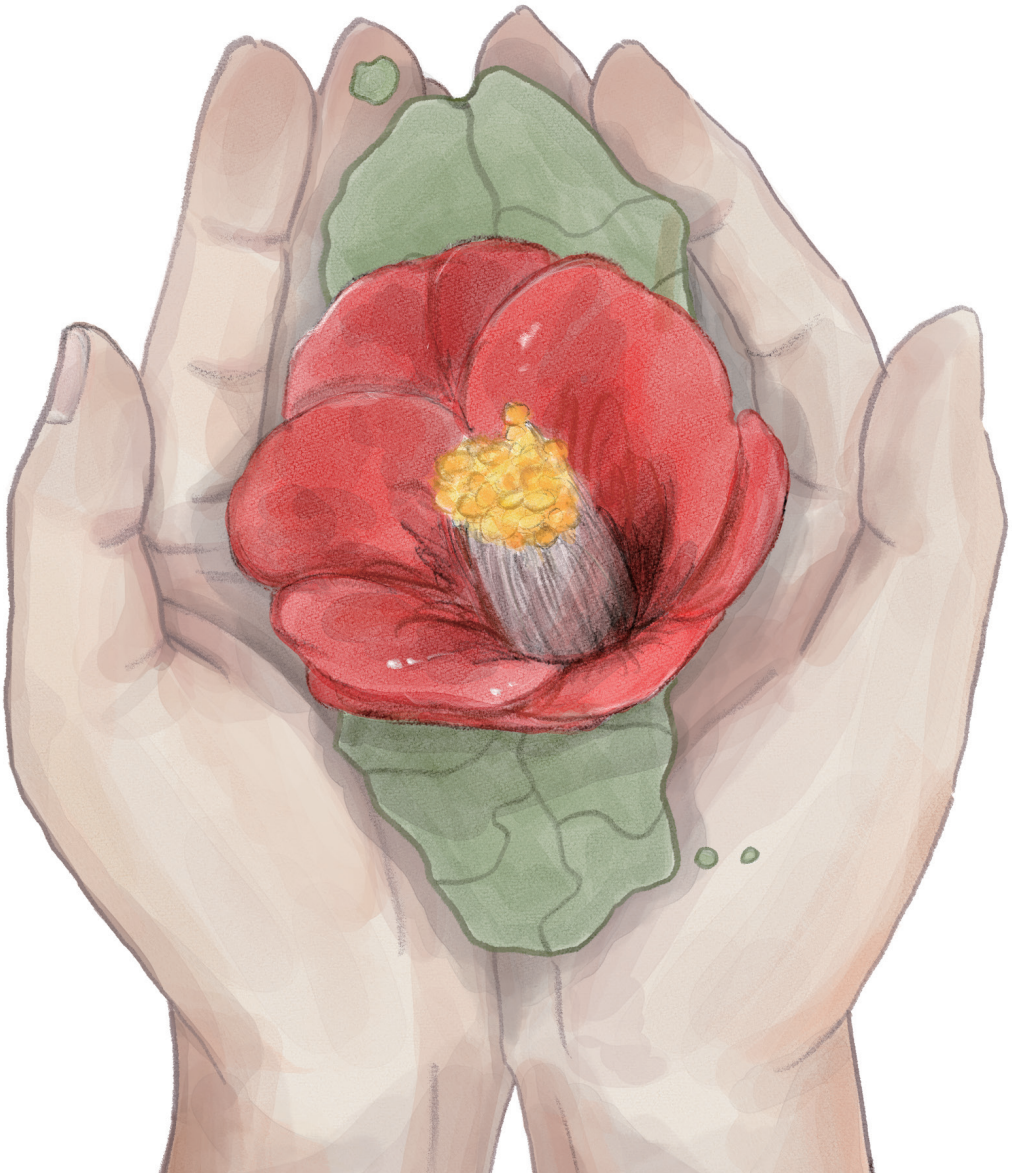
1950년 7월과 8월 예비검속이라는 이름하에 집단학살이 일어났던 첫알오름의 유해는 6년 후에야 발굴이 가능했다. 서로 엉킨 유골을 구분할 수 없어 함께 모아 묘를 만들었기에 <백조일손의 묘>라고 한다. 바람에 나부끼는 민들레 꽃 아래를 유심히 보면 흙이 봉긋 솟아있다. 감사와 행복의 꽃말을 담고 있는 민들레. 이곳을 찾은 우리에게 제주4·3을 기억해 주어 고맙다고, 현재를 살아가며 고민하고 있는 너희를 응원한다고 이곳에 묻히신 132분께서 그 마음을 표현해주는 것 같아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린다.

작전고등학교 지도교사 이고운



5

인천초은고등학교





84



끝까지 아이의 곁을 지키는

어머니의 뽕이사랑

“뽕이사랑”은 엄마가 혼돈 속에서 아이가 진정 할 수 있도록 불러준 자장가이다. 1949년 1월 6일 토벌작전이 펼쳐지면서 군인들에게 쫓겨 두 살 난 젓먹이 딸을 등에 업은 채 피신 도중 총에 맞아 희생된 당시 봉개동 주민 변병생 모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기념조각이다. 제주도 오기 전 영상으로 모녀상을 봤을 때 ‘뽕이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되었다. ‘뽕이사랑’의 의미를 알고 나니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더욱 느껴지게 되어 직접 방문했을 때도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 주는 것 같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인천초은고등학교 2학년 김은솔



30년 전 그날 그 밭에서 돌아가신

순이 삼촌

‘순이삼촌’은 1978년에 발행된 현기영 작가의 소설이다. 당시 제주4·3사건을 비밀로 하던 분위기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으로 세상에 이 사건을 알린 작가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비는 순이삼촌 문학비이다. 이 문학비는 옴팡진 밭에 위치해 있는데 옴팡진 밭이란 다른 땅보다 더 깊게 파여 있고 영양분도 많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 좋은 밭이다. ‘순이 삼촌’을 읽으면 옴팡진 밭에서 사람들이 학살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순이 삼촌’에 나오는 피해자이신 순이 삼촌이 딸들이 죽은 옴팡진 밭에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데 주인공의 생각처럼 나도 순이 삼촌이 ‘30년 전 해묵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는 그날, 옴팡진 밭

인천초은고등학교 2학년 김은솔

희미한 기억으로 남겨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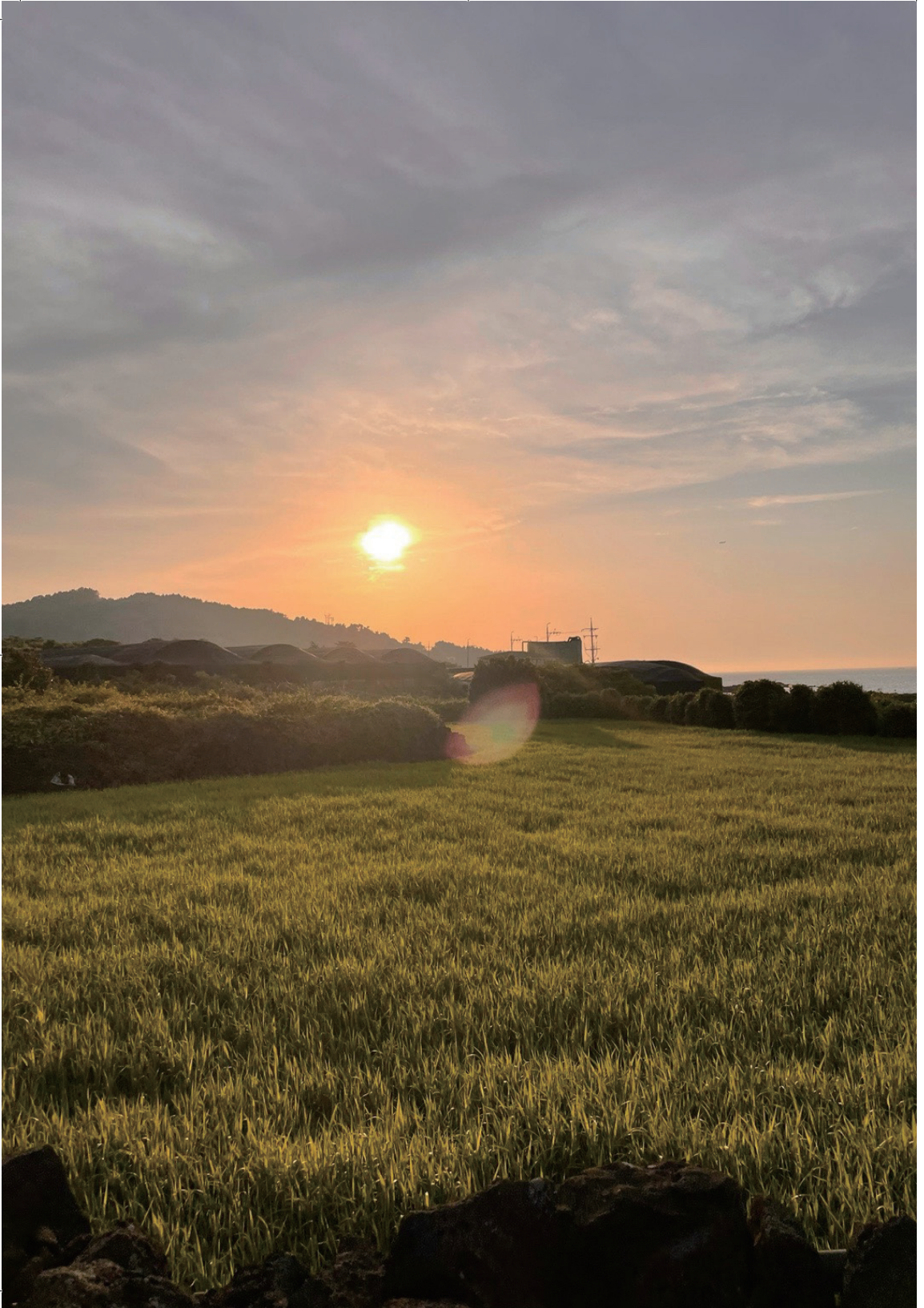
비행로

이 사진은 과거 정뜨르 비행장이라 불렀던 제주 공항의 비행로에 묻혀있던 100여구가 넘는 유골들을 발굴하던 현장을 재현한 것으로, 사건 당시 이곳에 큰 구덩이를 파 제주4·3사건의 사상자들을 사살하고 그대로 밀어 넣었다. 이런 구덩이가 제주 공항에 여러 개 더 존재할거라 판단되지만, 구덩이를 파고 유골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로 오는 비행기들의 운항을 멈춰야 한다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라 아직까지도 제주 공항에서 잊혀져 가는 이들이 있을거라 생각하며 그들 모두를 애도한다.

인천초은고등학교 2학년 서다빈







여전히 그날들을 기억하는

불타는 들판

제주4·3사건 당시 제주의 북촌리를 포함한 많은 마을들이 불에 타버려 자신들의 안식처인 편안한 집도, 농사일을 하던 밭들도, 외양간마저 불에 타버려 재가 되고 말았다. 이 사진은 사건 당시 큰 사상자가 나왔던 북촌리에서 찍은 들판으로 석양에 물든 들판이 마치 76년 전 그날들을 기억한다는 듯이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 이 들판을 보며 그 당시의 비극을 상기시켰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상처를 주지만 과거의 상처들을 되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 사건을 들판처럼 기억한다

인천초은고등학교 2학년 서다빈

기억하기 위해 4·3의 모든 것을 노래하는

4·3 평화 합창단



4·3평화 합창단은 제주4·3 유족회 산하의 단체로서 모든 구성원이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도는 많은 이들에게 4·3의 역사를 바르게 알리고 비참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됐다. 공연 등의 여러 행사 참여를 통해 4·3을 홍보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목적을 지니고 활동 중이다. 그들의 한 맺힌 노랫소리를 들으면 누구라도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초은고등학교 2학년 조수진



간난 아기를 안은 채 바닥에 웅크린

비극적인 이미지의 모녀상

1949년 1월 6일 봉개동 지역에 2연대의 토벌작전이 펼쳐지면서 군인들에게 쫓겨 두 살 난 젓먹이 딸을 등에 업은 채 피신 도중 총에 맞아 희생된 당시 봉개동 주민 변병생 모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기념조각이다. 등신대의 청동조각상인 이 작품은 4·3 당시 하얀 눈발을 표현한 백대리석의 원형판 위에서 아이를 끌어 안고 죽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모녀 조각상 주위 벽에 써있었던 제주 전래의 자장가 ‘웁이자랑’은 이 모녀가 처한 상황을 더 슬프게 만든 것 같다.



초은고등학교 2학년 조수진

옛 탄약고 자리에 남은 구덩이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원래는 일본군의 탄약고가 있던 자리였지만 미군이 들어오면서 폭파시킨 후 구덩이가 생겼다. 이 오름 위에 한 사람씩 세워 놓고 한 명의 군인이 한 명의 사람을 쏘도록 했다. 총에 맞은 사람은 밑에 있는 구덩이로 떨어져 쌓여갔다. 이 구덩이에서 무려 210명의 예비 검속자들이 학살되었다. 예비 검속자들은 트럭에 실려 이곳으로 향할 때 자신들을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옷과 소지품들을 던졌다고 한다. 1956년 5월 유해굴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백골이 되어버린 유해들이 이리저리 섞여 신원 확인이 불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신 132구를 백조일손지묘에 함께 안장하였다. 사진은 학살이 이루어졌던 구덩이를 군인의 시점, 그리고 처형 직전의 예비 검속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다. 방금까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쌓여간 것과 같이 자신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서있던 공포는 감히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아무리 처형해야 하는 사람이 빨갱이라고, 정치범이라고 수도 없이 세뇌 당했어도, 내가 직접 방아쇠를 당겨 쏘고, 굴러떨어져 구덩이로 들어가는 시신을 온전하게 지켜보는 군인의 고통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





인천초은고등학교 2학년 김채령

비극의 순간을 묘사한 4·3의 피에타 상
비설



두 살 난 젓먹이 아이를 업은 채 피신 가던 도중 총에 맞아 희생된 봉개동 주민 변병생씨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조각상이다. 이 조각상 주위에 빙 둘러져 있는 돌담에는 제주도의 자장가 윙이 자랑의 가사가 쓰여져 있다. 조각상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은 채 웅크리고 있는 형태로 조각되었다. 조각상을 보기 위해 달팽이 모양의 돌담을 걸어 들어가는 동안 보이는 윙이 자랑의 가사가 마음을 울린다. 눈발에서 웅크리고 앉아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윙이 자랑, 윙이 자랑하며 자장가를 불러 재우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이 작품의 제목인 비설(飛雪)은 쌓여 있다가 거센 바람에 의해 휘날리는 눈을 의미한다. 어쩌면 그저 평화롭게, 쌓인 눈처럼 살아가던 제주 사람들이 4·3사건이라는 거센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피신 가는 모습을 휘날린다고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녀상의 모습이 제주4·3사건의 참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인천초은고등학교 2학년 김채령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묻는 당신을 위한

화해와 치유의 공간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손을 잡으라”

영모원의 ‘4·3 희생자 위령비’의 뒷면에 새겨진 글이다. 역사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거나 아픈 기억을 어떻게 전승하는 것이 좋을지 길을 찾는 우리에게 ‘여기 와 고개 숙이라’라고 권유하고 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화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뜻으로, 4·3 시기에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던 하귀리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성되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군경 희생자와 민간인 희생자를 동시에 기리고 있으며, 국내에서 대통령부터 학생들까지, 해외에서 수많은 활동가들이 영모원을 찾아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모두가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이제야 비로소 지극한 슬픔의 땅에 지극한 눈물로 지극한 화해의 말을 새기나니... 섬나라 이 땅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 한번쯤 여기 와서 고개를 숙이라.”

영모원은 하귀1리 교차로가면 볼 수 있다.





인천초은고등학교 지도교사 박대훈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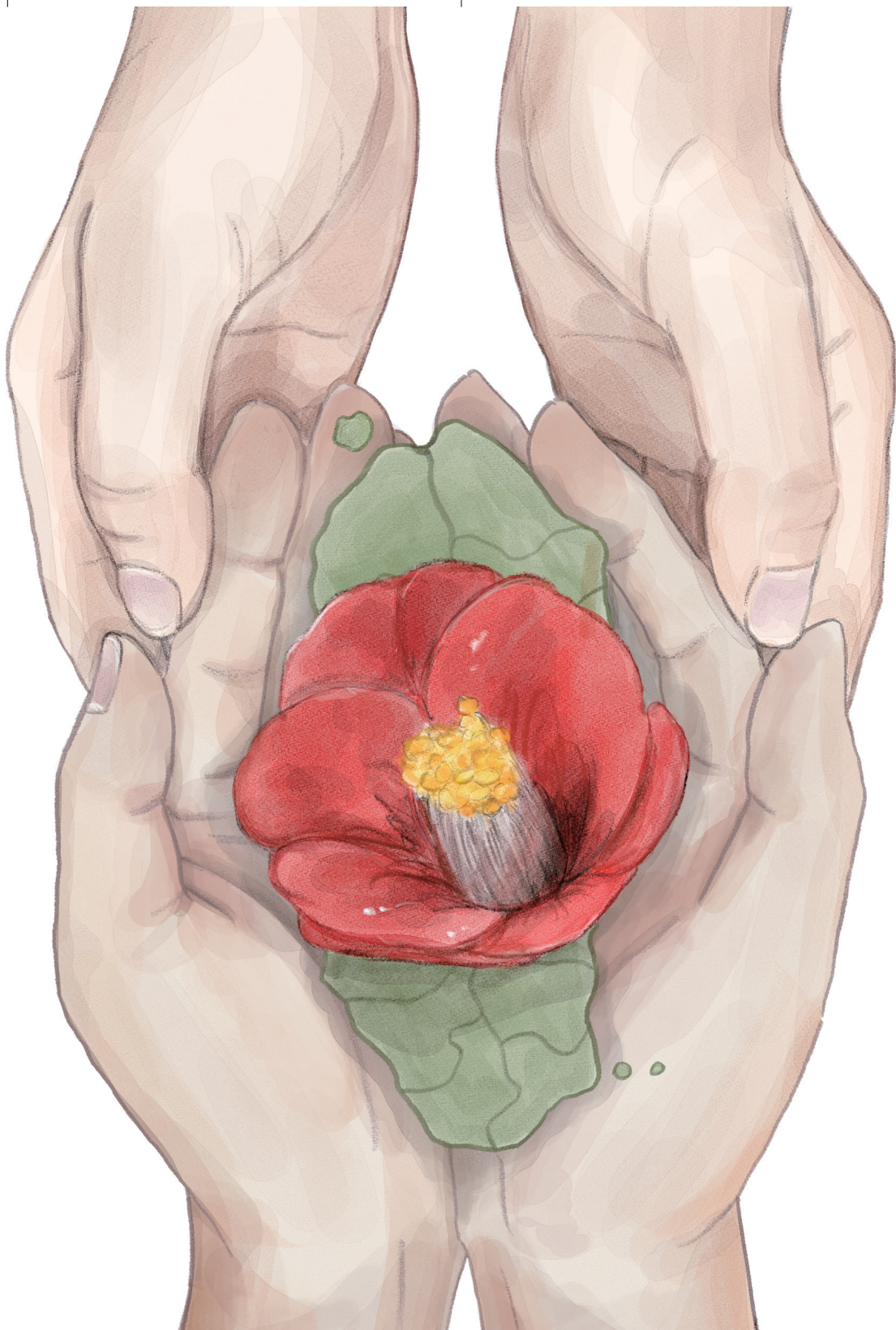


100명의 희생자에게 올리는 봄날의

고수레

‘고수레’는 들판이나 산에서 음식을 먹기 전 그곳의 신성한 존재에게 올리는 제물을 말한다. 1949년 1월 17일, 무장한 군인들이 북촌 주민들을 ‘당팻’과 ‘옴팡 밭’으로 끌고 가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 북촌 학살 때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인 북촌주민들은 군인들에 의해 이곳 ‘당팻’으로 끌려왔다. 군인들은 주민들을 이곳으로 끌고 오자마자 곧바로 총살했다. 당시 북촌학살은 북촌국민학교를 중심으로 동쪽의 ‘당팻’과 서쪽의 ‘너븐숭이’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이곳 ‘당팻’에서는 100여 명이 희생되었다. 아침부터 시작한 학살은 오후 5시가 돼서야 멈췄다. ‘당팻’은 할망당이 있는 곳의 밭이라는 제주 고유의 말이다. 2024년 봄, 학생들과 함께 찾은 ‘당팻’에서는 유채 꽃이 지고 씨앗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는데, 마치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고수레’처럼 보였다. 부디 평안해 지시길.

인천초은고등학교 지도교사 박대훈



1

인천대건고등학교

시민들이 생각하는 제주4·3사건

송악산 둘레길 공원에서 70대 노인 두 분이 정자에서 쉬고 계셔서 인사를 드리며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Q. 제주도에 살고 계신가요?

A. 제주도에 살았던 경험이 있고, 우리는 서울에서 왔어요.

Q. 혹시 제주4·3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A. 들어봤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이야기의 소재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느낌)

Q. 제주4·3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은 마음이 아픈데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야지!

과거에 얽매어 발전이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옛날 얘기만 하고, 지나간 옛날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집중해야 발전이 있지! 과거는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길 바라요.





인천대건고등학교 1학년 이도현, 장연우

시민들이 알고계시는 제주4·3사건

송악산 둘레길 공원에서 인터뷰 대상자를 찾던 중 60대 현지인과 접촉하여 인천에서 제주학생들과 4·3항쟁에 대해 공부하러 온 학생이라고 소개하였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Q. 혹시 제주4·3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고옥선(60대) 씨 (제주도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비극적이고 잔혹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Q. 제주4·3사건에 어떤 잔혹한 일이 있었나요?

고옥선 씨 (제주도민): 토굴을 파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매장 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관계로 더 이상 인터뷰를 할 수 없었고 70대로 보이는 분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은 관광차 제주를 방문하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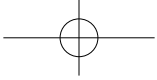
Q. 혹시 제주4·3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송연호(70대) 씨 이석원(70대) 씨 (외지인): 자세히는 모르나 최근에 뉴스를 보고 비극적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Q. 예전 제주4·3사건에 인식은 어떻게 되었나요?

송연호 씨 이석원 씨 (외지인): 예전엔 제주4·3사건을 제주 폭동 사건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도 제주4·3사건을 제주 폭동 사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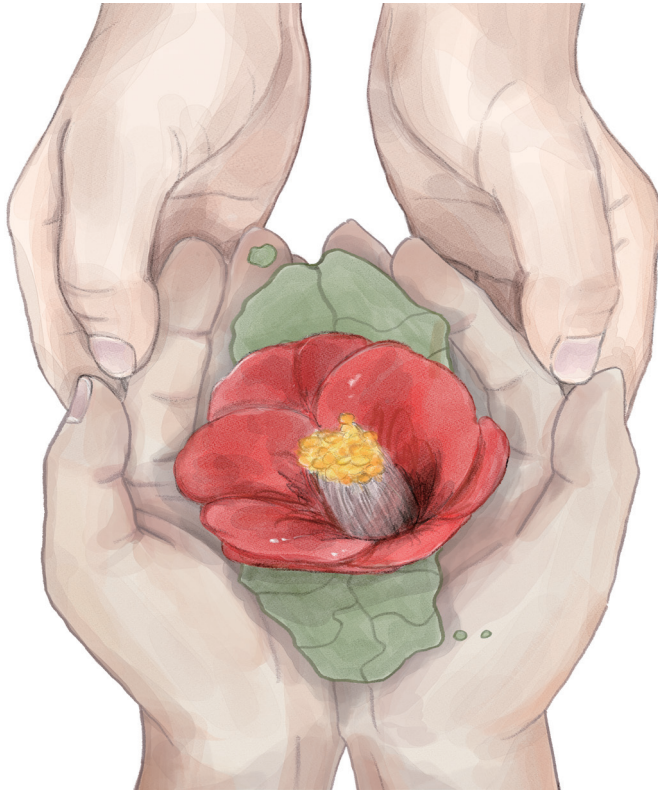


좀 더 자세히 여쭙고 싶었으나 일정상 다른 장소로 이동
하신다고 하며 떠나셔서 더 이상 인터뷰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 좀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느껴
진다.

인천대건고등학교 2학년 박성재, 박민준

2

인천신현고등학교 인터뷰



108



Q: 가족이나 지인 중에 제주4·3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A: 우리 시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해서 옛날에 양치종 교육감과 동창이고, 제주 농고(제주 고등학교) 나와서 일본까지 가서 공부해서 오신 분인데 옛날 전OO 국세청장이 우리 시아버지 제자였어요. 그렇게 막 잘 사는 집이었는데. 인제 그 일제시대 경찰관들을 다시 이승만 박사가 그 사람네 (그 일제시대 경찰관들) 그냥 쫓았어요. 그 사람네가 (우리 시아버지를) 질투해서 죄도 없이 그냥 재판받아서 나올 거로 시어머니는 생각했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마포형무소에 갔어요. 그때 박영수 변호사, 지난번에 박근혜 특검(위원장)의 아버지가 박창택, 목포 저 판사였는데, 박창택 판사가 우리 시어머니 외삼촌이라서 이제 나올 거로 생각을 했는데, 6·25 사변(6·25전쟁)이니까, 그냥 그 감방에 문 열어버리니까 아마 여기서 총 쬐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깐 (우리 시아버지가) 총알받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 아들 둘 데리고 시아버지가 집안이 너무 좋은 집안인데, 그냥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나는 큰며느리로서 시어머니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애기 아버지(남편)네 형제 선생님 두 분 다 두 사람 우리 애기 아버지하고, 시아주버니도 선생님 되고, 정신이 이상한 시어머니를 간수할래니까. 내가 너무 정말 기나긴 세월 지금 우리 애들 지금 다 키우면서 하려고 하니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애들도 지금 다 선생님도 하고 다 미국도 가서 공부하고 이화여대도 나오고 손자들도 그럴것인데, 내가 썩어서 그 씨앗이 된 것 같아요.

Q: 그러면은 이제 그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선생님은 어디 계셨나요?

A: 나는 1944년생이니까, 1살 2살밖에 안 돼.
(우리 시어머나가) 그냥 제주4·3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기네 책들을 읽어봐요. 우리 애들 육군 사관학교도 못 갔어. 박정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도 물론 말을 못 했지만, ‘이승만 지나면 그래도 박정희 때는 말할 수 있을까?’ 했는데, 못 하나까 말만 하면 “속숨머나! 속숨머나!”(조용히 해라 제주도 방언) 이제까지 숨어 살 (때)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가 정말로 병이 날 때 광주는 이걸 정말 때 거기도 광주한테도 너무 했지만, 거기는 사람 많잖아도 우리 제주도는 3만 명이야. 지금은 돌아가신 사람, 지금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어. 일본 러시아 쪽으로 책을 많이 읽어, 제주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 공산주의 사상 좋은 줄 알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 당시에는 무조건 그냥 이 극과 극 민주주의 하면 이걸 공산당이다. 그리고 미국 문서(미국 관련 비밀문서로 미국이 4·3 진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도 있잖아. 제주도 사람은 다 뭐니까 제주도를 초토화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없어진 마을이 많잖아. 제주도를 완전 빨갱이 마을이라 했어. 우리 제주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남북한 같이 총선거를 하자 해가지고, 김구 선생님 보내고 뭐하고 허는 걸 그걸 집회를 했는데, 이승만은 단독 선거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해서 다 죽였지.



Q: 제주4·3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해 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A1: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여당, 야당 갈라져서 제주도는 빨갱(이섬), 이번에도 국회의원 다 더불어민주당 나오니까. 빨갱이라고 하고 그렇게 너무 그 이념적으로만 계산하고 우리 제주도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도 몇 사람 있다고 그러데, 소문에 들으니까. 근데 전혀 관계없는 평민들이 많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이념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념적으로 살아가면 절대 안 돼. 미국이라고 다 좋은 점도 없고 중국이라고 다 나쁘지도 않고 중국이라고 좋지도 않아. 그니까 우리는 우리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 우리나라 중심이 남과 북을 그렇게 가르면 안 돼.

A2: 저기 이념에 대해서는 이제 농민들이 인식이 아주 좋아졌어요. 이제 같이 더불어도 하고 차별도 그래서 이제 나도 보상도 이렇게 잘되고 인식도 좋아져서 서로 더불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Q: 제주4·3 하면 가장 떠오르는 장소가 있으실까요?

A2: 이제 북촌이라고 거기는 한 300명이 한꺼번에 전 마을을 다 죽여버려서 몰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죄 없는 사람들 모두 운동장에 다 모아서 총살해버린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거 순이 삼촌 그 뮤지컬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그때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벌벌 떨어면서 그렇게 해서 군인하고 경찰 가족만 나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총살했다고 하더라고요

A1: 화산 유수지가 한 군데가 아니 제주도가 다 사선(쏟 탄 알이 지나간 선)들이 너무 많아. 몇십, 몇십 개 그 저 성산포도 이렇게 가다 보면 바닷물 일으켜서 모르겠는데 제주북초등학교 그 관덕정 마당 뭐 촌에 없어진 마을이 막 3만 명이나 죽으니까, 제주4·3 유적지가 엄청 많았지.

A2: 남은 분들은 또 부인들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우리는 정말 빨갱이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제주4·3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말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빨갱이라고 항상 지적받으면서 그 당시에는 직장도 잘 못 다녔어요. 직장도 뭐 하고 특히 군인, 이제 장교라도 되려면은 연좌제에 걸려서 하나도 승진도 안 됐죠. 그리고 또 갈 수도 없었고. 약 한 4학년만 되면 경찰관이 딸려 있어서 검찰 만약 판사 검사 이런 쪽 돼도 연좌제에 걸려서 그런 것을 하나도 채용 안 해서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전부 해소돼서 이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Q: 제주4·3사건에 대해서 미래 세대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A2: 좀 어려운 질문인데...

A1: 제주4·3사건의 역사를 잘 공부해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태용호(정치인) 같은 사람이 뭐 북한에 발견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제주도 사람들이 지금도 제주도 사람들 똑똑해. 그 옛날에도 외세의 문물을, 책을 많이 받아들여서 제주도 사람 똑똑해 가지고 남북한 선거를 원했어요. 그런 공산당이 아니에요.



제주4·3 공산당이 아닌 그거(공산당이 아닌 것)를 꼭 알아야 하고 말해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 계실 때, 그 사상계를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장준하 선생님(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껌방 갈 때까지 한 걸 다 읽으니까. 알지만은 정말 제주도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남한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니깐, 제주도를 초토화시켜라 하니까. 그것을 따라서 국가의 정책과 미군 정책이 합쳐서 된 거지. 제주도 사람이 빨갱이는 아니에요. 빨갱이가 된 것도 아니에요.

A2: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우리 제주도를 좀 더 이해하고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1: 제주도 사람은 진짜로 참 부지런하고 여자든지 남자든지 또 배우려고 노력하고 부지런해. 제주도 와서 배울 것이 많다고. 육지에서 오히려.

Q: 마지막 질문은 이 제주4·3 사건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꼭 학생들이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사건이 있을까요?

A1: 있어, 북한에서 그 뭐꼬(뭐냐) 서북청년단 내려와 가지고 성산포에서 제주도 사람을 잘도 괴롭혔어. 얼마나 서북청년단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제주도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서북청년단 역사를 연구해 보면 또 제주도 사람이 얼마나 시달렸는가.

A2: 제주 그 당시에 정말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A1: 경찰관은 경찰관대로

A2: 무서워서 그렇게 살았는지 그런 걸 알아서 좀 정말 빨갱이가 아니라는 거 공산당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줘서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A1: 양쪽으로 했어. 경찰관은 경찰관대로 서북청년단들은 서북청년단대로 내려와서 그냥 제주도 사람 못살게 굴었어. 서북청년단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해.

A2: 답변이 잘 됐는지, 정말...

A1: 학생들은 서북청년단이 제주도 와서 (저)지른 거 모를 거예요. 나쁜 짓 한 거. 나쁜 짓 많이 했어요.

A2: 성산포 쪽으로 가면 어떤 사람을 그냥 학살했던 그런 사건이지. '우리가 뭐 폭동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폭동)을 이제 학생들도 알아줬으면 합니다.

A1: 누구든지 못살게 굴어가면, 거기서 반항해서 평민들이 밤에 여자들도 서북청년단들이 와서 마을에 와서 막 가면 밤에 나무때기(길고 가느다란 나뭇가지)치고 다 부추 쫓아(보초 쫓아). 그럼 싸움이 되는 거잖아. 자기네(서북청년단)가 먼저 제주도 사람 못 살게 하니까, 그래서 싸움이 된 거지. 제주도 사람이 먼저 허지는(하지는) 절대 안 해. 제주도 사람들의 심성이 남을 먼저 해코지 하는 심성이 아니야,

A2: (인터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Q.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A. 조OO

Q.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A. OO하우스(농사 지으시는 일)

Q. 혹시 탄압을 당하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A. (제주4·3)당한 건 없고, 여기(인터뷰자 세대) 탄압당하거나 뭐 할 수 없어.

Q. 그럼 가족이나 지인 중에 제주4·3과 관련된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A. 저희 가족엔 없고, 주위 사람들은 좀 있어. 우리 가족에는 없고.

Q.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A. 제주4·3에서? 제주4·3은 그 당시에 여기(제주도)에서 지금.. 많이. 그때 여기서 좀 시작 됐어. 그런데 있고 *원서리 지금쯤은 제주4·3 해가지고, 저.. 유골 찾게 해가지고 많이 찾았어. 찾아가지고, 내년에는 보상도 나온다고 지금이면 시작했을거야. 아마.

Q.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감정을 느끼셨나요?

A.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역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슬펐지. 근데 현실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뭐.. 희생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

Q. 제주4·3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A. 그야 뭐 우리가 당한 세대가 아니니까. (옆분: 역사야)

그냥 하나의 슬픈 얘기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Q. 제주4·3이 제주도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A. 옆분: (아픈 역사지. 전라도 가면 광주사태처럼 그 이상의 아픔, 제주도가 관광지가 아니었잖아,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엄청난 큰 사건이지.) 제주도에서 가장 큰 사건이지.

Q. 제주4·3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했나요?

A. 처음에는 그 내용(제주4·3)을 잘 몰라가지고, 처음 그런 얘기(제주4·3)를 했는데 그 이제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진상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그런 생각(폭동)을 안 갖고 제주의 슬픈 과 거일 뿐이다. 희생된 분들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 처음에는 어디서 보면 폭도 사상, 폭도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진상을 재조명해서 이게 폭도가 아니고 그런 진실이 밝혀진 게 참 고마운 일이지.

Q. 제주4·3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그렇지, 그런 아픈 과거(제주4·3)를 다시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 세대에는 좀 제주4·3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거는 우리 제주도의 슬픈 이야기니까 영원히 기억돼야 해. 여기서.

Q. 제주4·3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나 이유가 있나요?

A. 우리 세대들도 제주4·3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 우리 후손이나 (육지의) 후손들도 그런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또 우리 후세들도 알려야 된다고(생각해).



느낀 점

이에스더

이 동화 만들기와 인터뷰를 통해 느낀 것은 제주도에서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동화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며 내가 이곳에서 이런 슬픔을 느꼈었지!’ 생각하고 ‘나의 이 미안함과 슬픔을 어떤 서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며 제주4·3을 직접 겪으신 분들을 만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직접 느낄 수 있어, 비록 그분들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는 못 하겠지만 유가족분들의 심정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라도 유가족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해인

인터뷰 정리를 통해 느낀 점이 있다. 제주4·3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에게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제주4·3사건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서영

제주답사 활동을 하며 제주4·3 당시에 겪었던 고통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답사 중 제주4·3에 대해 들으셨거나 당하신 분께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사건에 대해 들려주셨을 때 그 당시 분들이 아무 잘못 없이 고통을 받으셨던 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를 기억하여 제주4·3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후대에 잘 전달해야겠다. 그동안 자세히 밝혀지지 못했었지만, 교류를 통한 제주4·3 활동의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하여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소은

우리나라는 역사적 또는 지리적으로 침략과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은 나라이고 또한 근대에 넘어와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지역적으로 큰 아픔을 지닌 곳이 많습니다. 정치적이란 이유로 특정 정권에서 잊히기보다 이런 아픔의 역사를 직시하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전승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주4·3사건은 광복 후 어려운 상황에서 이념분쟁에 따라 민초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이러한 이념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현재 우리는 이런 아픔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현실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도 비록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나 아직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나 경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평화가 없고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적이지 못하거나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더욱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평화와 인권이 존중 받고 더욱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리 학생들 또한 항상 인권존중과 더 발전된 민주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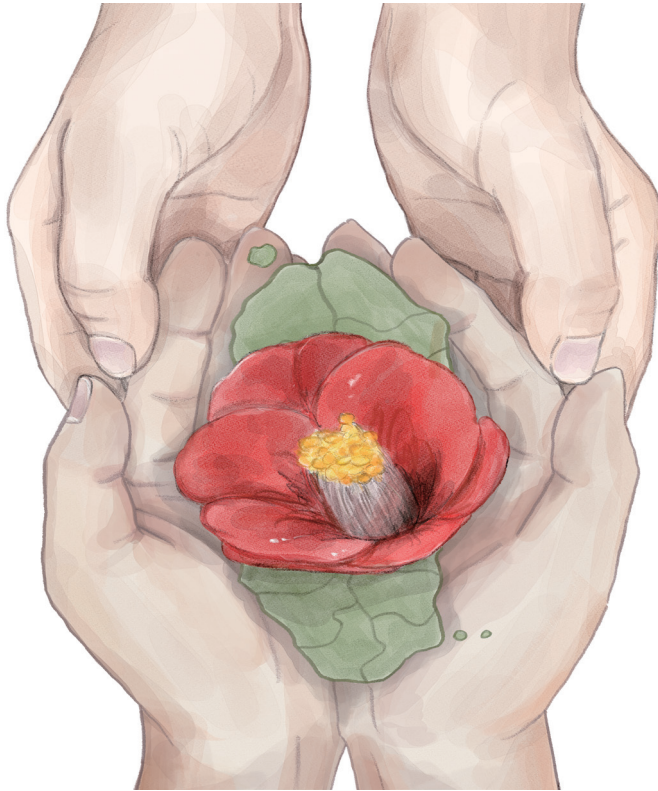


3

작전고등학교 인터뷰

구자건, 김형민 기자

촬영: 김남준, 정연우 그리고 함께한 이고운 선생님



제주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제주4·3’에 대해 묻다 제주 거주 중인 학생의 인터뷰

Q. 가족분 중 제주4·3사건과 관련된 분이 계신다면, 가족에게 들은 제주4·3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A. 양근혁 학생: 외가 쪽에서는 저희 조부모님의 아버지, 친척분과, 형제분들이 돌아가셨고 친가는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친가에서 4·3에 대해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저희가 무장단체라고 했을 때 총을 들고 갔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총을 든 건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은 죽창을 들었다고 해요. 낮에는 경찰들이 와서 못살게 굴고 저녁때는 무장단체들이 죽창을 들고 사람을 죽이시는 걸 봤다고 해요.

A. 정희운 학생: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4·3 때 돌아가셨어요. 전해 듣기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밧줄에 묶여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총을 맞으셨어요. 당시에는 운이 좋게도 허벅지에 맞아서서 몰래 산으로 도망치셨는데 쫓아온 군인들에 의해 할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Q. 육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주4·3과 제주분들이 생각하는 제주4·3의 생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양근혁 학생: 보고 배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제주4·3은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제주의 역사이고, 제주도에서 계속 살았던 가족 중에 희생자가 한 명씩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민에게 조금 더 와닿고 슬픈 역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인천5·3민주항쟁 제주4·3사건 역사·평화교육 학생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A. 김서현 학생: 저는 제주에서 18년째 살고 있는데요, 4·3사건이 되풀이되면 안 되는 아픈 역사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평소에 4·3사건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돼서 마음이 더 속상했던 것 같아요.

A. 강시현 학생: 저도 처음엔 4·3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요즘 제주 초등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교육하고 있고,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도 현장에서 답사하는 것처럼 교육 활동을 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희생자가 제주도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라 아니라 여·순사건 같이 다른 사건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새롭게 와닿았어요.

Q. 제주4.3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한다고 생각 하는 것이 있을까요?

A. 양근혁 학생: 개인적으로는 남북 운영 체제(이념) 갈등에서 시작된 문제인데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커져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하고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A. 산책하던 여학생: 사람들이 어? 제주4·3 유명하지!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닌 4·3사건에 대한 진실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주 4·3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Q. 인천의 학생과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의 학생들에게 또는 이 활동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A. 김서현 학생: 인천의 학교에서도 제주4·3사건에 대해 배우는 지가 궁금해요.

A. 정희운 학생: 4·3에 대해서 저는 제주도에서만 살다 보니 다른 지역 사람들은 4·3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A. 강시현 학생: 인천·3민주항쟁과 제주4·3사건이 어떤 연관이 있어서 제주와 인천의 학생과 교육청이 함께 활동하는 건지 궁금해요.



인천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제주4·3’에 대해 묻다
인천 거주 중인 학생의 인터뷰
(구자건 기자)

Q.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제주4·3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떠오르는 단어를 얘기해 주셔도 돼요.

A. 김은하 학생: 4·3에 대해 저희가 육지에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역사동아리 친구들이니까 4·3에 대해 아는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떠올리는 거는 제주4·3사건, 하면 일단 억울한 희생, 사상자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A. 이도현 학생: 저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가끔 4·3사건 관련된 정보들을 보긴 했는데,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서 그냥 안 좋은 사건으로만 알았지 무슨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희생을 당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A. 장연우 학생: 저는 4·3사건에 대해 이름 정도만 알고 정보에 대해 잘 몰랐었고 유튜브에 뜨더라도 이게 제주4·3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Q. 인천5·3민주항쟁 제주4·3사건 역사·평화교육 학생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A. 김은하 학생: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들이 제주 4·3 하면 억울한 희생, 사상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슬픈 역사를 담은 제주도에서 많은 분이 그 역사를 이겨냈기에 지금처럼 멋지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4·3사건 은 슬픔의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극복과 아름다움의 역사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 이다애 학생: 사실 잘 몰랐는데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좋았고, 관련된 영상도 자주 찾아볼 것 같아요.

A. 박범석 학생: 이 행사를 통해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고 엄청난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정말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A. 이도현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4·3사건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작은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희생 당하기도 했고, 오랫동안 벌어진 사건이기도 해서 이걸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A. 장연우 학생: 오기 전부터 자료에 대해 많이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땐 수많은 사상자가 있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와서 직접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제주 4·3사건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주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제주4·3’에 대해 묻다
제주4·3 유가족 합창단 단장님의 인터뷰
(김형민 기자)

Q.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주4·3에 대한 인식이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처음에는 연좌제로 공무원도 못 했고, 취직도 못 했는데, 이젠 풀려서 평등한 국민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지금 와서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행동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수수께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Q. 육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주4·3과 제주분들이 생각하는 제주4·3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차이점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홍보가 잘 안된 점도 있고, 유족분들은 아직도 4·3이 너무 억울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는 사돈의 사촌, 팔촌까지 안 겪어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집만 넘으면 거의 90% 이상이 겪어본 일이겠지만, 육지에 계신 분들은 4·3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들어본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도 4·3에 대한 공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제주4·3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요?

A.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요.



권윤덕 작가님의 인터뷰
(대표 저서: 『꽃 할머니』, 『나무 도장』)

Q. 작가님의 ‘나무 도장’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꽃 할머니’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베트남 여성과 이라크 여성이 독자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꽃 할머니’라는 책은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했던 잘못들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림책으로 그리려고 생각 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중간 다리 역할은 한 것이 바로 ‘나무 도장’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주4·3사건을 다룬 책이에요.

‘나무 도장’에 보면 주인공 (외삼촌)은 물론 등장하는 여자와 엄마 이렇게 3명의 중심인물이 있어요. 여기서 외삼촌은 제주 경찰이고 주인공의 가족들이 학살 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책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자리에 소개돼요. 가해자는 어떤 자리에서 본인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것은 본인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해 내는지 ‘외삼촌’을 통해 가해자의 이야기를 담아냈어요.

Q. 작가님께서 이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맨 처음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010년에 평화 그림책이 나오고 나서, 우리 사회에 아픈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그것을 시대 속에서 어떻게든지 잘 견뎌내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하면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무 도장’이라는 책은 2016년에 나왔는데 그때쯤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학생들은 세월호 얘기를 해 달라 얘기했어요.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누군가 대신 얘기해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한 권 한 권 책을 쓰게 되었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며 우리도 느끼고 성장했어요

인터뷰를 처음 진행한 것은 제주4·3 평화공원이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아주 넓었던 그 장소에서 제주4·3 전문가분과 이야기했었다. 매우 떨렸었고 실제로 영상을 보면 시선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느껴진다. 이번 기회에 나는 4·3사건에 대해 다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진행하며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도 배웠다. 아무쪼록 배운 게 너무 많았던 2박 3일이었다. 명문 서적의 첫 번째 줄 같았던 날이었다.

구자건 기자

그동안 자세하게 모르고 말로만 알았던 제주4·3사건으로 인터뷰해 보는 활동을 통해서 제주도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고 말로만 알고 있던 제주4·3사건을 이제는 얼마나 참혹하고 슬픈 사건인지 알게 되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제주도에서의 시간이었다.

김남준

역사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배운 이후 제주4·3에 대하여 작년에 처음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도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제주4·3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주도민분들과 전문가들께 제주 4·3에 대하여 들으니, 이젠 내가 그 누구보다 4·3에 대하여 잘 알기 때문에, 제주4·3사건에 대해 모두가 잘 알 수 있도록 연쇄반응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형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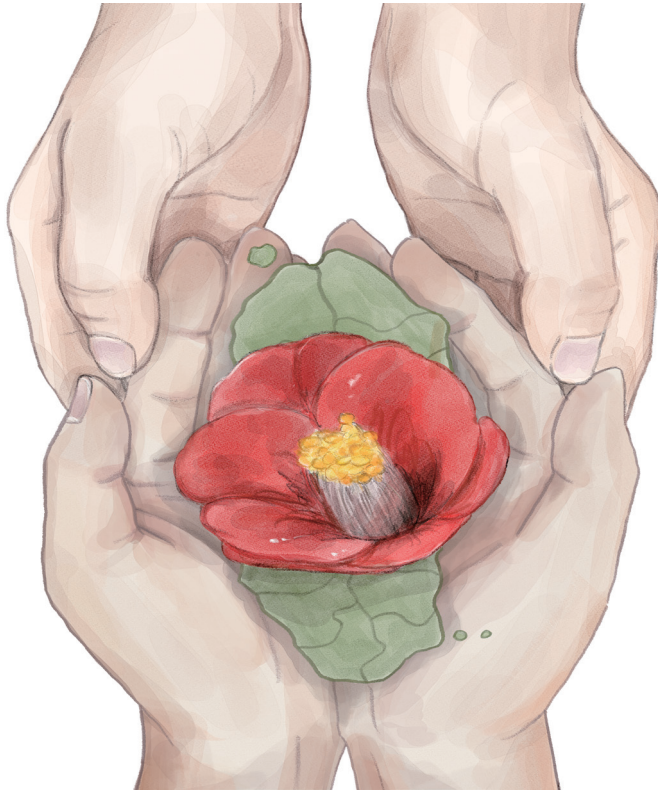
평소 잘 알지 못했던 4·3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인터뷰하면서 4·3사건에 직접적으로 공감하고 몰랐던 일까지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제주4·3사건을 좀 달리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어 좋았던 것 같다.

정연우



4

인천초은고등학교 인터뷰



희생의 노래, 평화의 울림: 제주4·3 합창단의 소망

제주4·3 평화 합창단의 단장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며 자라셨습니다. 제주4·3사건 당시, 단장님의 아버지는 군인들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하셨고, 그 시기에 살고 있던 집도 불타버렸습니다. 단장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의 사진을 본 적이 없었고, 얼굴조차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란 그저 하나의 고유명사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상황에서도,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가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밖에 나가 땀이 났도록 일을 하시며, 단장님을 포함한 네 남매 모두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자녀들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결국 어머니는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셔서 52세의 젊은 나이에 과로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단장님의 나이는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단장님은 망상으로라도 아버지가 먼 곳, 만주 같은 곳에서 살아 돌아올 거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면서, 단장님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기대는 결국 깨지면서 아버지가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단장님의 소망은 단 한 번만이라도 꿈에서 아버지를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의 마지막에서 단장님은 제주4·3사건을 언급하며, “4·3은 말로만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일 수 있지만, 그 당시를 살아낸 어머니와 언니, 오빠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큰 굴레 속에서 살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아픔을 기억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Q: 제주 4.3 평화 합창단을 하시면서 제주4·3사건에 대해서 알리고 계신 건가요?

A: 네 맞아요 이 합창단이 2017년 만들어졌는데 저는 사실 음치지만 부모님을 기리기 위해 이 합창단에 들어왔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보람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치유도 받아서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느낀점

제주4·3사건 관련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깊이 맞닿아 있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희생된 이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과거의 아픔으로만 남기지 않고,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다시는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주4·3사건은 국가와 사회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단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상처와 고통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통계나 기록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삶의 큰 변화를 겪은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며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남기기 위해 헌신한 이들의 이야기는 큰 감동을 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으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천초은고등학교 2학년 조수진



잊히지 않는 아픔, 제주4·3 그날을 다시 묻다.

우리는 보성리에 위치한 보성리 복지회관에서 할머니 3분에게서 제주4·3사건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리는 제주4·3 평화 기념관에 적혀있는 문구인 “제주에 사는 사람 중 아무나 붙잡고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그 주변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할머니분들께 직접 겪은 피해가 있는지, 주변인분들 중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했고, 다음 이어진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Q1.) 제주4·3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거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으신가요?

A.)우리가 인터뷰한 3분의 할머니분들이 직접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이셨다. 이 중에서 93세의 할머니께서는 직접 겪으신 일들에 대해 답변해주셨다. 할머니의 부모님은 4·3사건으로 인해 돌아가시고 사라진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경찰이 계속해서 묻자 모른다고 하니 이어진 것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또한 총대를 몸에 들이대며 위협을 하였다. 할머니께서는 당시 제주의 바다가 핏빛으로 빨갱게 물들었다고 증언해주셨다. 계엄령이 좀 껌껌해진 뒤에는 사람들을 끌고 가 무자비하게 군사훈련을 시켰다고 말씀해주셨다. 제주4·3 평화 재단에 있는 비석은 신체가 없는 피해자들을 위한 비석이 있고 본인의 아버지 또한 그 곳에 이름이 적혀있다고 말씀해주셨다.

Q2.) 당시 제주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A.) 우리 집에서든 어린 우리가 먹는 쌀 같은 건 우리가 내놔도 다 친척들이 모아서 해줬지. 그렇게 해서 참 조금 궁핍했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맨날 죽이려고 그래. 사람은 그냥 무조건 들판에서 걸리면 다 죽어. 산에서 심하다가 때리다가도 죽이고 그냥 신경들 곤두세우다가 그냥 걸리면 잡아다가 또 쏘고. 사람 죽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돼지 하나 잡는 것보다 더 쉽게 죽였어.

Q3.)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A.) 학생들, 안 겪어도 눈물이 나는 거 봐. 우리는 겪은 사람이라 눈물이 안 나. 겪은 사람은 눈으로 못 봤으니까 눈물이 안 나. 서귀포에서 세화 바닷가에 막 한창 싸움이 벌어졌어. 바닥에 있어도 바닷가에 세화 근처에 다 쏘았어.

바닷물이 시체들로 가득해서 바닷물이 핏물로 별장게 변했어. 이 나이 들 때까지도 그 바닷가에 가면 그 일이 생각나.

Q4.) 제주4·3 평화 재단의 비석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조금만 말하자면, 그거 신체 없는 비석들이예요. 그 안에 큰 집에 써진 건 신체가 있는 이름자들이고, 들판에 있는 조그마한 비석들은 신체가 묻혀 있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한 비석이에요. 나라가 좋아졌으니 그렇게 또 해줬죠.



Q5.) 계엄령 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A.) 그때부터 사람들이 계엄령에 끄끙 앓았어. 우리가 한창 훈련을 조직해서 위에는 하얀 모자, 하얀 티, 아래는 까만 몸빼 입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훈련을 계속 시켰어. 그 훈련을 치르지 못하면 지금 보초 서라고 성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데려갔어.

Q6.) 군사훈련에 참여하셨나요?

A.) 그때는 돌멩이로 다 무기를 만들어 줬잖아. 군대에서는 밤에 부추 사서 순찰을 돌고, 특공대가 돌아다니며 포위했어. 여자들이 왜 방해됐느냐고 물었어. 제주4·3사건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이후로 군인들이 2차, 3차로 차출되어 갔어.

Q7.) 당시의 군사훈련 경험에 대해 더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A.) 나중에는 학도병이 17살 이상 되면 육군으로 징병되어 갔어. 우리 영감도 17살에 첩보를 들고 갔지. 해병대가 삼척까지 갔고, 육군도 차출되었어. 남자들이 거의 없었어. 몸이 성하지 않으면 군대에 갔지. 그래서 우리를 방위대로 조직했어. 남자들 대신 쓴 거야. 그때는 옷도 파란 거, 모자도 파란 거, 나무로 총을 만들어 훈련했어.

Q8.) 그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나요?

A.) 요새 사람들은 그걸 몰라. 우리 때는 사진도 없었고 배운 적도 없었어. 훈련소에 가면 바로 군인으로 보내졌어. 한 달간 단체로 거기서 먹고 자며 훈련을 받았지. 국방부 장관이나 높은 사람들의 목적을 설명했어. 그날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면 그 목적을 공부했어.

Q9.) 그 훈련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A.) 군대 훈련 때는 쪽 앉아서 공부하고 식사 준비하면 다 같이 밥을 먹었어. 아침 먹고 훈련 나가고, 점심 먹고 훈련 나가고, 저녁 먹고 또 훈련했어. 한 달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어.



느낀점

맑고 깨끗한 바닷물로 유명한 제주의 바다가 한때는 수많은 가족들의 피로 물들여졌다는,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바다가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상처로 가득한 공간이라는 것이 도무지 실감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며 자신들이 70여 년 전 겪었던 일들을 무덤덤히 얘기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제주4·3은 정말 멀지 않은, 누군가의 가족이 누군가의 친구가 누군가의 이웃이 희생당한 가슴 아픈 우리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인터뷰는 앞서 진행했던 답사 활동들보다 더 큰 울림을 받았다.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무덤덤하게 말씀해주는 누군가의 말씀을 들은 것은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귀한 시간과, 이런 가슴 아픈 역사의 증거라고 생각된다.



인천초은고등학교 2학년 서다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백미경 장학사님 인터뷰

4·3의 아픔을 넘어서, 기억과 공감을 잇는 여정

Q. 언제 처음 제주4·3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A.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전혀 4·3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가족 누구도 4·3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 물어봐도 말해주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대학생 때 부모님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선배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4·3 기간이 되면 ‘너희들은 이런 교육을 못 받았지? 제주 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설명해주셨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가족이 4·3에 연관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러다 알게 되고 조금씩 배우면서 4·3의 이런 흔적들을 보고 작년부터 이 업무를 하게 되었다.

Q.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신가요?

A. 4·3 유족이어서 유족증을 가지고 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관련 자료들을 찾아 신청한 후 유족으로 등재되었다. 이 업무를 하며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하게 되었다. 교사였던 당시에도 인터넷에서만 보던 4·3을 이제는 막연히 알거나 들은 얘기가 아닌 항상 책상에 꽂혀 있는 진상 보고서를 걷어보며 사건의 맥락 특정 인물의 사정들 공간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집중하고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제주 인천 학생들이 교류하는 것이 뿌듯하고 어제 학생들이 함께 토의하는 것을 보고 울림을 느꼈다.

아버지는 당시 너무 어렸고 할아버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버지는 그 당시 살아남는 것이 관건이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뿐만 아닌 모든 제주도민들에게 해당되었을 것이다.

Q.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었나요?

A. 전혀 하지 않으셨다. 듣지 못했다.

(본인의 기억이 없으셔서 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아버지에게는 그 기억이 너무나 상처였고, 또 이로 인한 삶의 제약이 많으셨던 것 같다. 아버지께서는 연좌제를 경험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공부하실 때 많이 힘들었다. 아버지가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하시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에 진학하셨는데 대학을 다 마치지 못했다. 이것에 대한 한스러움이 있으셨던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참 많이 강조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농사도 참 독특하게 지으셨던 것 같다. 노란 수박, 특이한 굴 등을 재배하셨고, 몇 그루의 나무를 심으셔서 그 나무에서 나는 굴은 팔지 않고 가족들만 먹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셨던 것 같다. 표현은 잘하지 않으셨지만 되게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다. 지금 만약 살아계셨다면 손자 손녀들을 되게 많이 예뻐하셨을 것 같은 느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셨을 것 같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공부를 해서 농사가 아닌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 되고 싶으셨던 것 같다. 하지만 연좌제로 그것을 하지 못하셨다. 하지만 우리 삼 남매는 다 공부를 해서 오빠와 나는 선생님, 남동생은 연구원, 모두가 자기가 해야 하는 공부를 했고, 본인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뿌듯해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Q.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A. 할아버지께서는 일본에서 공부도 하셨었다. 그 당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공부하다 제주도로 넘어오셨다. 또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 때문에 미운털이 박히는 과정도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생각이 깊으셨던 것 같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셨고, 그러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 물론 할아버지는 본인이 생각하는 길을 가셨지만, 그로 인해 가족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본인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들을 싫어하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그 두려움도 분명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렸을 때 느낀 죽음이라는 공포는 매우 컸을 것이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공포심은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안전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하지 못 한, 아마 본인의 삶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 공부를 자녀들에게 강조했던 것 같다. 매우 시골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셨다.

아버지께서는 농사가 끝나시면 조그마한 밥상에서 수학, 맞춤법 등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 그때 아버지의 교육 열은 대단하셨다는 느낌이 든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가족에 대한 사랑은 깊으셨지만 오히려 본인 이야기나 할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전혀 하지 않으셨다. 그게 아이들한테 어떤 더 힘든, 그 당시 끝나지 않았던 연좌제에 피해 받을까 봐. 그 당시 해제가 되지 않은 연좌제 때문에 사촌오빠가 경찰학교를 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 자녀가 혹시 본인의 꿈을 펼치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다.

Q. 할아버지께서는 제주4·3 피해를 받고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살아남으셨는데, 혹시 그 이유와 배경, 사연이 있을까요?

A. 당시 폭도 가족이라고 아버지가 살던 집에 습격을 오셨다고 했다. 할머니는 둘째를 임신중이셨고, 아버지께서는 3살, 4살 쯤이셨다. 할머니께서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항아리에 집어넣으셨다. 그리고 집에는 화재가 났고, 아버지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다. 다행이도 항아리는 깨지지 않았고, 아버지는 살아남으셨다. 아버지 다리에 있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어머니에게서 들었다. 아버지께도 여쭙봤지만, 어렸을 때 다쳤다고 표현할 뿐, 자세한 말은 하지 않으셨다. 할머니도 선택을 잘 하셨던 것 같다. 그 당시 불을 질렀는데, 초가집은 다 탔다. 하지만 항아리는 그렇지 않았고,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의 문턱을 경험을 경험하신 아버지는 이를 자녀들에게 주기 싫으셨던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다.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었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을텐데, 아버지는 제 나이보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지금의 이 상황이 되었다면, 아버지는 정말 홀가분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대화했을텐데, 아무런 기회가 나에겐 없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안고 돌아가셨다. 좀 답답한 마음이 있다. 어렸을 때 나는 이것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다.

우리 마을에는 제사가 같은 날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날은 신나게 노는 날이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12시까지 놀 수 있는 공식적 기회가 제삿날이었다. 그때는 왜 동시에 같은 날 제사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날 그냥 많이 돌아가셨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제사하는 당일에도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제사 때 흔히 하는 어떻게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오직 제사만,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듣지 못했다. 이게 그당시 4·3의 정서였고, 제주도의 정서였다. 그게 아마 아버지한테도 남아있었고, 아버지의 삶에서 이것이 누적되어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지금은 정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물을 수가 없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애월읍에 사셨다. 이 곳에는 진보적 성향이신 분들이 많았던 동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다보니 희생이 좀 있었던 것 같다.

Q. 제주4·3사건을 그냥 책이나 학습으로 공부하다가 가족이 그 일을 겪었던 사실을 20대 때 알게 되신 건가요?

A. 그렇다. 어머니를 통해 알게되었다. 제가 그냥 학교 다닐 때는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알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게 전혀 내 이야기인지는 모른 채 ‘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구나.’, ‘어떻게 저렇게 잔혹한 일이 제주도에 있었을까?’ 했다. 난 너무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반성이다. 그러면서 무서웠던 건 제주도 어르신 분들이 저걸 다 말하지 않고 다 참았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 된다.

Q. 어머니께 처음 유가족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 떤가요?

A. 가장 처음엔 되게 멍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가 큰 사건의 한 피해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되게 먼 게 있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았던 것이었다.

Q. 할아버지의 기록을 찾으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A. 할아버지들의 기록들이 한 분야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섞여있다. 그래서 기록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기록들을 찾는 도중 끊겼다. 그 당시 구치소에 계셨는데, 이제 6·25가 터지면서 다 풀어줬다고만 하고 그 다음 행방이 없다. 국가기록원에 갔다 오고, 갔다 오면 자료들을 찾긴 했지만 국가 공식적 자료는 거기서 끝이 났고,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이를 알고 있는 분께 증언을 받는 수 밖엔 없다.



이렇게 증언해서 지금 기록된 것들을 조금 보긴 하지만 거기 이상은 저희도 모른다. 아마 제주도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럴 것이다. 기록을 해서 증언들이 남아있긴 한데, 그 당시 증언으로 예비 검속 같은 경우처럼 그 다음 기록이 없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다.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까 말했던 수장, 수장도 어느 지점인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이제 증언에 의하면 할아버지께서 바다에서 돌아가셨다 하니까 저희는 제사상에 생선국을 올리지 않는다. 원래 생선국을 올리는 것인데, 저희는 생선국이 아닌 계란국을 올린다. 그러니까 생선이 제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장되었다고 그렇게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옥돔이 제주도 제사의 메인임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는다. 주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장되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집들이 아마 많을 것이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생선국을 올리지 않는다. 어떤 할머니께서는 생선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 이유가 바로 자기 가족이 수장되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생선이 시신을 파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도저히 생선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신다. 지금 제주도 전체는 살아있는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다 각자 갖고 있고, 그걸 추론하는 과정들을 각자의 영역 안에서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푸는 게,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계속 울림을 받는다.

Q.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A. 또 다른 뿌듯함을 느낀다. 학교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뭔가 알고 이러면 되게 으쓱하고 오늘 수업 성공이라고 느끼는데, 어제 같이 토론하며 나누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인천 큰 범위에서, 아이들이 이 기억을 갖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직업이나 미래 또는 또 하나의 가치관 형성에 바탕이 아주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는 일을 성공 했다고 생각한다. 엄청나게 많은 걸 변화시키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 그럴 수 있는 영역도, 역량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제 ‘얘기하면서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던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되면 주변 친구들에게 ‘나 이런 거 알게 되었어.’ 하면서 또 관심 갖게 되고, 이렇게 하나씩 퍼지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뿌듯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느낀점

장학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다. 제주4·3사건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도 피해자분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 끝난 후에도 큰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피해자분들 및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제주4·3사건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 같다.

김채령 기자

이번 인터뷰를 하며 책에서 읽은 것과는 달리 자세하게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더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학사님처럼 자신이 유가족인지도 모르게 피해자분들이 이 사건을 말하지 않아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은솔 기자

